

코스피	코스닥
3192.29	818.27
(+5.91)	(+6.04)
금리 (미국 9년)	환율 (원/달러)
2.497	1391.85
(+0.020)	(+6.15)

한미 관세협상 전략
농축산물 개방
카드 꺼내나
02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최종 무죄 선고

이재용, 10년 사법리스크 족쇄 풀렸다

법원 “증거 능력 인정 안 돼”
미전실 관련자들 무죄 판결

경영 정상화, 먹거리 확보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 가속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의 경영 활동에 발목을 잡았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등 이른바 ‘불법 승계’ 의혹 혐의가 무죄로 마침표를 찍었다. 이 회장은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했다는 의혹을 지난 10년간 받아왔다.

17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3면〉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며,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2심 판단이 그대로 인정됐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주도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계획하고,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 5000억원대 분식 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무죄 확정 판결은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에 나왔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 변호인단은 무죄를 확정판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예상대로 이 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서 향후 삼성전자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 먹거리 확보와 경영 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다져야하는 삼성전자는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결되면서 삼성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와 글로벌 경영에 가속도를 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8년여



물에 잠긴 비닐하우스

집중호우가 쏟아진 17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상봉2리의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겨 있다. /뉴시스

동안 감옥에 가고 해외 출장이 금지되는 등 여러가지 곤혹을 치렀지만 예상대로 무죄가 확정돼 다행이다”며 “미국과 일본에 도입되지 않은 IFRS(국제 회계기준)를 2011년 무리하게 도입하면서 삼성은 물론 국가적으로 큰 피해

를 끼쳤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용 회장도 스스로 깨닫고 있듯이 위기에 빠진 삼성이라는 조직을 잘 추스르고 적극적인 M&A를 통한 기술혁신을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美 6월 물가 상승

트럼프 압박에도

금리 ‘동결’ 무게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1년 전과 비교해 2.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금리인하 시점이 늦춰질 전망이다. 물가 목표치(2%)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하겠다는 금리 인하 압박을 지속하고 있지만,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 동결을 주장하는 형국이다.

17일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뉴스사이트 ‘리얼아메리카스보이스’와의 인터뷰에서 “파월 의장이 사임하면 좋겠다”면서도 “파월 의장을 해임할 경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세간의 목소리가 있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을 향해 금리를 3%포인트(p) 내리라며 사임을 강하게 압박해 왔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연 4.50%로 지난해 말부터 다섯차례 동결됐다. 트럼프가 요구한대로 기준금리를 3%p 내리면 연 1.5%다.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심화되면서 금리를 올리기 전인 2022년 5월(연 1.0%)로 기준금리가 되돌아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연준에 금리 인하 요구

6월 CPI 2.7%, 물가 목표 초과

美 연준, 물가 안정 우선 주장

금리 인하, 올해 말로 미뤄질 듯

문제는 물가가 금리를 올리기 전 상태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2022년 5월 8.6%까지 치솟았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현재 2~3%대로 내려왔다.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월 3.0% ▲2월 2.8% ▲3월 2.4% ▲4월 2.3% ▲5월 2.4% ▲6월 2.7%로 평균 2.6%다. 금리를 올리기 전 1%대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다.

특히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월까지 2% 초반에서 움직이다가 6월 2.7%로 뛰었다. 연준의 주요 목표는 물가안정과 최대고용이다. 물가가 목표치(2%)를 상회하는 한 금리를 인하하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올해 말이 되어 서야 금리 인하를 고민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영향이 서서히 반영되며 6월 물가가 상승한 만큼 올해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판단을 마친 뒤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분석이다.

〈2면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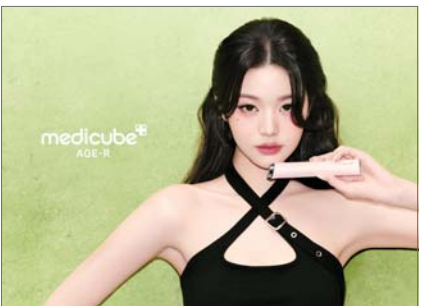
/나유리 기자 yul115@

현지생산·혁신기술·유통확대… 고관세 맞서는 K뷰티

한국콜마, 美서 두번 째 공장 가동
에이피알, 국제적 안전성·효능 입증

국내 뷰티 업계가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미국 고관세 정책을 피하기 위해 현지 생산시설을 확대하고, 미국 최대 온라인몰 아마존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거나 국제적 인증 획득으로 제품의 평판을 높이는 성과 등이 눈길을 끈다.

17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표 화장품 제조개발생산(ODM) 기업 한국콜마는 최근 미국에서 국내 뷰티 브랜드를 비롯해 글로벌 브랜드까지 정조준하는 핵심 기지를 마련했다.



뷰티 디바이스 ‘에이지알’의 브랜드 모델 장원영이 브랜드 대표 제품 ‘부스터 프로 미니 플러스’를 소개하고 있다. /에이피알

국내 화장품 기업이 미국 현지에서 제조공장을 직접 세운 사례로는 처음이다.

지난 16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 한국콜마는 콜마USA 제2공장 준공식을 열고 본격 가동을 공식 알렸다. 이번 제

2공장 설립은 일찍이 2023년 1월부터 추진돼 2년 반 만에 완성됐다.

제2공장은 연간 약 1억2000만 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기존 제1공장까지 더하면 한국콜마는 현재 미국 현지에서만 연간 약 3억 개에 달하는 생산 역량을 확보했다. 제2공장은 기초스킨케어 제품과 선키어 제품을, 제1공장은 색조 화장품을 맡는다.

한국콜마는 제2공장 가동을 통해 미국의 고관세 정책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현지 제조로 관세 영향을 해소하는 동시에, ‘메이드 바이 콜마’에 중점을 둔 국내외 고객사와 협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날 제2공장 준공식에서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은 “미국 제2공장은 새로운 비전과 협력의 출발점으로, 다양한 밸류체인 파트너들과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북미 최대 화장품 제조 허브(HUB)로 도약하겠다”며 “관세 부담 없이 미국 진출을 원하는 K뷰티는 물론 북미, 유럽, 남미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원하는 고객사들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 유연하게 발맞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K뷰티테크 대표 브랜드사 에이피알은 자사 제품의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해 해외 시장에서 차별화된 브랜드 신뢰도를 구축했다. <4면에 계속>

/이정하 기자 mlee236@

메트로 한줄뉴스



▲조국혁신당 “인사청문회 논란 장관 후보자, 스스로 거취 결정해야”
▲김종인 “미국서 이 대통령 친중이라고 오해”…
▲한미동맹 최우선” /사진 뉴시스

▲김정관 “재생에너지·원전 같이 간다는 신념… 실용적으로 조화돼야”
▲“에어컨 설치하라”… 인권위에 ‘尹 수감생활 개선’ 진정 잇따라

▲윤상현 “李 민주당 위주 특사단 구성… 선거공신 챙기기”
▲윤호중 행안장관 후보 “경찰국 신속 폐지… 최악 참사, 세월호·이태원”

반도체·자동차 타결위해… 사과·소고기·쌀 협상 카드로

산업부, 韓美 관세협상 전략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농축산물 추가개방 의중 내비쳐

소고기 월령 30개월 이상 수입 쟁점
사과, 과학적 검역기준 통과해야

정부가 사과 시장 개방 및 소고기 수입 확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관세협상에서 반도체와 자동차 등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반대 급부로 농축산물 개방 카드를 꺼내 드는 방안이다.

이 같은 가능성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지난 14일 발언 이후 확산하고 있다. 그는 산업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세협상 타결을 위해 농축산물 시장을 추가로 개방할 수 있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여 본부장은 “우리가 미국뿐 아니라 어느 나라와 통상 협상을 하든 농산물이 고통스럽지 않은 협상이 없었다”며 “농산물 부문도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양국 간에 진행 중인 관세협상에는 비관세장벽 완화도 포함돼 있다. 수입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소고기 상품이 진열돼 있다.

/뉴시스

확대 압박을 받는 품목으로는 소고기, 사과, 쌀 등이 거론된다.

소고기는 월령 30개월 이상을 들여올지가 쟁점이다. 정부는 2008년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나온 식용 부위만 수입하도록 위생 조건을 제정한 바 있다. 정부는 국민적 반발에 더해, 높은 소일수록 광우병 발생 확률이 크다는 점 등을 내세워 미국과 접점을 찾았다.

이에 대해 전국한우협회는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소고기가 국내에 반입될 시 소비자 불안 심리가 커질 수 있고, 국내산 축산물까지 피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미국산 소고기는 국내에 이미 많이 들어오고 있다. 월령제한 해제로 수입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라며 “문제는 미국산 소고기의 품질과 신뢰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한우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과의 경우,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검역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행 식물방역법 및 국제식물보호협약에 따라 ‘8단계 위험도’ 분석을 거쳐 과일·채소 등의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해외 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돼 발생할 수 있는 농업계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미국은 지난 1993년 우리 정부에 사과수입 허용을 요청했고 현재 2단계 절차를 밟는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외국산 사과의 수입은 국내법과 국제 기준을 바탕으로 마련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누군가 속도를 내라고 지시한다 해서 단계를 임의로 생략하거나 줄일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품목이다. 한국의 쌀 수입 규제는 비관세장벽의 한 단면이라며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고 쌀 시장 개방은 20년간(2015년까지)의 유예를 적용받았다. 이후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연간 40만8700톤(t)을 의무수입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 가운데 미국 배정분이 13

만2304t이다. 해당 물량은 관세 5%를 적용하고 그 외 추가분은 513%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산 쌀 수입 확대는 양국 간 합의로만 이뤄지지 않는다. WTO 회원국에 관련 계획을 통보한 뒤 이해관계국의 이의 제기 등에 대응해야 하는 절차가 기다린다. 미국산과 마찬가지로 5% 관세가 적용되는 TRQ 쿼터국인 4개국 동의도 얻어야 한다. 중국과 베트남, 태국, 호주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개방 가능성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정부가 결정한 사항이 없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지난 16일 낸 성명에서 “미국이 농업시장 추가 개방으로 농민 생존권과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통상압력을 가하는데, 고위 통상당국자가 ‘전략적 판단’을 운운하는 것은 마치 농업을 바둑판의 사석(상대편에 잡혀 죽은 돌)으로 보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세종=김연제 기자 kys@metroseoul.co.kr

美 AI산업 고도화… ‘K-변압기’ 현지공략

미국 트럼프 행정부

AI·에너지에 920억 달러 투자 계획
전력기기 업계, 추가 성장동력 확보

미국이 인공지능(AI)·에너지분야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초고압 변압기를 비롯한 전력기기 수요가 중장기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AI산업 고도화와 전력망 재편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고전압 변압기 등 핵심 인프라 장비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5일(현지시간) ‘에너지, 혁신’ 서밋에서 AI와 에너지 분야에 총 920억달러(약 127조원)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560억달러,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 360억달러가 쓰일 예정이다. 또한 AI 기술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확대도 추진된다.

특히 이번 계획은 구글, 블랙스톤, 코어웨이브 등 20개 주요 에너지·기술 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민간 투자를 유

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 건설에 필수적인 변압기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전력기기 업계는 이번 발표에 환호하고 있다. 이미 장기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더해진 셈이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기준 HD현대일렉트릭의 수주잔고는 8조4939억원, 효성중공업 중공업 사업부문 수주잔고는 12조4253억원, LS일렉트릭은 3조8894억원으로 집계됐다.

미국 내 입지도 넓어지고 있다. 한국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변압기 수출 비율은 지난 2010년 32.3%에서 지난해 63.3%로 게 늘었다. 미국 전력망이 오래돼 미국 변압기의 약 66%가 교체 대상이 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전력기기 업체들은 미국 현지 투자를 지속하며 수요 증가에 선제 대응하는 분위기다. HD현대일렉트릭은 지난 2011년 미국에 공장을 설립해 초고압

변압기를 생산해왔다. 최근에는 1850억원을 투입해 북미 공장 증설 계획도 밝혔다.

효성중공업은 지난 2019년 미 테네시주 멤피스에 있던 일본 미쓰비시의 초고압 변압기 공장을 4650만달러(약 645억원)에 인수해 2020년부터 가동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두 번째 증설에 돌입한 상태다. LS일렉트릭 또한 미국 텍사스주에 생산·연구 시설인 배스트럽 캠퍼스를 준공해 초고압 변압기 등 전력 기기를 생산할 방침이다.

오는 23일 예정된 트럼프의 ‘AI 액션 플랜’ 발표에도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계획에는 전력 인프라 확충과 AI 인프라 투자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이 포함될 전망이다. 미국이 전력망 확장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자국의 AI 패권 전략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히 중국의 AI 굴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SK온 박종진 전략구매실장(왼쪽), 에코프로이노베이션 김윤태 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SK온 그린캠퍼스에서 수산화리튬 공급 계약 체결 후 기념 촬영에 임하고 있다.

/SK온

SK온-에코프로이노, 수산화리튬 공급 계약

‘공급망 다변화’ 구매 경쟁력 확대
미국 IRA에 선제적 대응하기로

SK온이 에코프로이노베이션과 손잡고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수산화리튬을 국내에서 확보한다. 공급망을 다변화해 구매 경쟁력을 높이고 미국 개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전략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온은 에코프로이노베이션과 수산화리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SK온은 이번 계약을 통해 에코프로이노베이션으로부터 올해 연말까지 국내산 수산화리튬 최대 6000톤을 공급받는다. 전기차 약 10만 대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국내 양극재 공장을 거쳐 SK온 미국 공장에 최종 공급되는 방식이다.

에코프로이노베이션은 지난해 국내 대형 셀사에 수산화리튬을 공급한데 이어 SK온까지 고객사로 확보하면서 고객 다변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사는 향후 2~3년간 수산화리튬을 추가 공급하는 계약을 연내 맺을 예

정이다.

니켈·코발트·망간(NCM) 양극재의 핵심 원료인 수산화리튬은 주로 중국 등 해외에서 공급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수산화리튬 수입량 중 중국산이 82.7%에 달한다.

SK온은 국내산 원료 조달로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고 가격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산 수산화리튬은 IRA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요건을 충족해 미국산 배터리 원가 경쟁력 확보에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SK온은 지난 2022년 도입된 IRA에 대응하기 위해 원소재 글로벌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있다. 2024년 6월 미국 엑손모빌과 리튬 공급 협력 양해각서, 같은 해 2월 미국 웨스트위터와 천연 흑연 공급 계약, 2022년 11월 칠레 SQM과 리튬 공급 계약 등을 체결했다.

국내산 원료를 쓰면 통관비, 운송비 등에서도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앞서 SK온은 지난 2024년 11월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과 국내산 수산화리튬 공급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차현정 기자

“여름 인플레이션 지표가 정책경로 좌우”

>> 1면 ‘美 6월 물가상승’서 계속

JP모건 마이클 페를리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오는 9월부터 내년까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여름 동안 나올 인플레이션 지표가 앞으로의 정책경로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도 감소하고 있어 올해 금리 인하 카드를 안 내놓긴 어려울 것이라

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6월 기준 14만7000명 증가했다. 비농업 일자리는 지난해 12월말 25만6000명에서 올해 1월 14만3000명, 2월 15만1000명, 3월 22만8000명, 4월 17만7000명, 5월 13만9000명, 6월 14만7000명이다. 3월을 제외하고는 10만명대로 둔화하고 있다.

기업들은 경기가 어려워지면 인건비

를 가장 먼저 줄인다. 경기가 위축되며 일자리가 줄어 들고 있는 만큼 금리를 인하해 경기를 회복시키자는 주장이 거세질 수 있다는 의미다.

JP모건은 “비농업 고용이 표면적으로 양호해 보이지만, 실업률의 점진적 상승은 고용악화를, 이민 급감은 인플레이션 위험을 증가하게 할 것”이라며 “경제활동이과 노동시장에 대한 데이터의 둔화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금리인하 압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반도체·전장 등 대규모 M&A 전망… ‘뉴삼성’ 기대감 고조

이재용 삼성 회장, 경영일선 복귀
그룹 내 의사결정 등 변화 예상
위기 극복·미래비전 확보 기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0년간 발목을 잡았던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면서 삼성그룹의 위기 타개와 미래 비전 확보에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이 회장은 그룹의 위기와 함께 불투명한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대규모 인수·합병(M&A)과 투자, 그룹의 혁신을 추진하며 ‘뉴삼성’을 향한 체제 마련에 그룹의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위기의 삼성 돌파구 모색 매진

삼성전자는 총수인 이 회장이 그동안 사법리스크에 매여 있음에 따라 대규모 투자 결정 등에 차질을 빚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도체 사업에서는 파운드리와 시스템LSI(설계) 부문의 조 단위 적자가 이어지고 있고, 초격차를 자부해온 메모리 부문은 인공지능(AI) 핵심 밸류체인이 된 고대역폭 메모리(HBM) 개발에 실패한 채 글로벌 점유율 1위도 위태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직원들이 출입하고 있다.

/뉴시스

운 상황이다.

지난해 3분기 실적 발표 후에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인 전영현 부회장이 이례적으로 사과 메시지를 발표할 정도로 기술 경쟁력 약화와 회사 미래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됐다. 특히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수준인 4조 6000억원에 그쳤다. 메모리 시장 1위 자리마저 SK하이닉스에 내어줄 위기 상황을 맞았다.

스마트폰 사업에서는 애플에 프리미엄 시장 주도권을 내어줬으며 중국 업체는 추격의 고삐를 죄고 있다. 30년 가

까이 그룹의 주력 사업인 반도체와 모바일이 힘을내지 못하면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현대차와 SK하이닉스에 밀려 2년 연속 국내 2위에 그쳤다.

여기에 미·중 기술패권 경쟁,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경제 환경이 어느 때보다 불투명해졌다. 국내에서도 상법 개정으로 대표되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정책의 부작용으로 경영권 위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래 투자와 빅딜 집중

이 회장이 경영 현장으로 완전히 복귀하면서 삼성전자는 앞으로 공격적인

M&A에 나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삼성은 이미 지난해와 올해 M&A 의사결정이 한결 과감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동안 삼성은 ▲소니오(의료기술) ▲옥스포드 시멘틱 테크놀로지스(AI) ▲레인보우로보틱스(로봇) ▲플렉트(공조) ▲마시모(오디오) ▲젤스(헬스케어) 등 6개사를 차례로 인수했다. 지난 2017년 하만 인수 이후 오랜만에 신성장동력 확보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모바일,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 M&A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의 경우 M&A를 통한 초격차형 미래기술을 확보할 경우 지금 당장 수익을 낼 수 있고 시장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초대형 빅딜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반도체와 모바일, 전장 등은 수익성과 직결되고 대규모 투자와 M&A 전략이 필요한 만큼 이 회장의 경영 복귀로 삼성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실제 지난 2월 2심 무죄 선고 이후 사법 리스크 해소 기대와 함께 그룹의 빅

딜도 서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올해 4월 자회사 하만을 통해 미국 마시모의 오디오 사업부를, 5월에는 독일 공조업체 플렉트를 인수했다. 이달 초에는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 젤스를 인수하기도 했다.

또 최근 이 회장이 미국에서 글로벌 재계 사교 모임인 ‘선밸리 콘퍼런스’에 참석하며 AI 분야 협력 강화와 신성장사업 기회를 모색하기도 했다. 이달 말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열리는 글로벌 테크CEO 모임인 ‘구글 캠프’에도 참석해 신기술협력과 글로벌 현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반도체와 AI, 바이오 등 미래 신성장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결정을 신속하게 이어갈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이재성 중앙대학교 AI학과 교수는 “로봇, 의료 분야 등에서 인수합병이 집중력 있게 이뤄진 만큼 시너지가 클 것이라는 기대감이 든다”며 “M&A에 집중하는 것은 그간 뒤쳐진 부분을 빠르게 따라잡겠다는 전략으로 보여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경제계, 무죄 안도… “韓 경제, 긍정적 효과 가져올 것”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불법승계’ 의혹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음에 따라 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이에 경제계는 이 회장의 무죄에 안도하며 경제에 미칠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대법원의 최종 판

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해당 기업의 경영 리스크 해소뿐만 아니라 한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판결은 삼성그룹이 첨단 기술 혁신에 집중하고, 글로벌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이라며 “글로벌 통상 갈등, 첨단산업 패권 경쟁 등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전략적 투자·개발과 신속한 의사결정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 제도 개선과 과감한 지

원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실장은 “삼성전자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미국발 관세 문제, 저장장 고착화 등 수많은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한국기업을 대표하는 삼성전자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

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삼성전자는 이재용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을 중심으로 더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혁신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더 많은 일자리 창출로 우리 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10년째 이어진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면서 이 회장은 대규모 인수·합병(M&A)과 투자 등 ‘뉴삼성’ 비전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전망이다. /양성운 기자

일자리 줄고 물가·집값 치솟고… 독립·결혼 대신 생존 택해

대한민국 저성장·고령화시대

② 우울한 청년세대

독립·결혼·양육, 능력의 영역으로

자녀 세대가 빠르게 가난해지고 있다. 산업구조 재편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산업의 수도권 집중으로 주거비용을 비롯한 생활비도 빠르게 올랐다. 경제성장률 둔화로 물가상승률이 임금상승률을 앞지르며 자산형성도 어려워지면서 부모로부터의 독립, 결혼과 양육도 선택과 능력의 영역이 됐다.

17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만 19~34세 청년의 평균 소득은 연 2625만원(월 219만원)이다. 40대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인 연 5027만원(월 419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고용 유연화로 인한 고용 품질의 양극화, 실업 청년 증가, 임금상승률 둔화 등으로 기성세대와의 소득 격차가 발생했다.

미래에 대한 기대도 어렵다. 지난



서울 서대문구의 한 대학가 인근 원룸촌. 청년 1인 가구는 원룸 거주비율이 높다. /뉴시스

1960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평균 7.4%에 달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산업 경쟁력 약화, 인구구조 변화, 소비 회복 지연 등으로 저성장 국면이 이어지면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연간 경제성장률 평균은 2.3%까지 급감했다. 같은 기간 세계 경제성장률 평균인 연 3.1%를 밑돈다.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면서 물가상승률도 임금상승률을 앞질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연간 물가상승률은 평균 3.95%다. 같

은 기간 연간 임금상승률 평균인 3.7%보다 높다. 매년 월급이 오르는데도 구매력은 계속해서 낮아진다.

자녀 세대의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일자리를 위해 청년 홀로 생활하는 ‘1인 가구’와 부모와 계속해서 생활하는 ‘갬거루족’도 빠르게 늘고 있다. 결혼과 독립도 의무가 아닌 선택과 능력의 영역이 됐다.

◆청년 1인 가구 급증… 혼자 벌여 혼자 산다

국무조정실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하는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홀로 생활하는 1인 가구의 비중은 지난 2022년 22.6%에서 2024년 23.8%로 1.2%포인트(p) 늘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1인 가구 가운데 주거비 부담이 큰 월세에 거주하는 비중은 57.9%(보증부월세 및 사글세)다. 27%는 전세 형태로 거주중이고, 자가 거주는 5.9%에 불과했다. 소득 대비 평균 주거비 지출은 17.5%였으며, 3명 중 1명은 주거비 부담액이 전체 소득의 20%를 넘겼다.

청년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것은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 때문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 증가한 취업자 수는 331만명이다. 이중 150만명은 수도권 신도시에서 발생했고,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에서 발생한 일자리 수(21만개)는 인천에서 발생한 일자리 수(24만8000개)에도 미치지 못했다.

임금 격차도 커지고 있다. 2017년 하반기 8.7%포인트(p) 수준이었던 수도권-비수도권 간 청년 임금 격차는 2022년 하반기 14.1%p까지 상승했다. 청년들은 더 나은 일자리와 높은 소득을 위해 상경을 택하게 되는 셈이다. 실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이유로는 ‘더 나은 일자리를 원한다’라는 응답이 31.6%로 가장 많았다.

◆독립도 결혼도 ‘돈 문제’… ‘갬거루족’ 급증

경제적 이유로 독립과 결혼을 포기하는 ‘갬거루족’(경제적 여건 때문에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도 빠르게 늘었다. 지난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미혼 청년의 비중은 54%(자녀 가구주·부모 가구주 합산)다. 재산 축적이 어려운 자

녀 세대가 빚을 내서 독립하기보다는 부모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경제 공동체로 남는 경우가 과반이다.

청년의 독립과 결혼을 늦추는 것은 고용구조의 변화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매출액 100대 기업 중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한 67개 기업의 20대 임직원 비중은 지난 2022년 24.8%에서 2024년 21%로 2년 만에 3.8%p 하락했다. 공채를 줄이고 경력 수시 채용을 늘린 영향이다. 청년 대다수가 독립과 결혼, 육아를 꺼리는 요인으로 경제적 요인을 꼽는 만큼 좋은 일자리 감소는 독립을 포기하는 청년을 늘리고 출생률도 낮춘다.

갬거루족의 증가는 출생률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부양하는 대신 결혼과 양육은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30대 초반의 한 청년은 “부모찬스 없이는 처음부터 자거나 전세를 마련하는 건 어렵고, 월 50만~60만원에 달하는 월세를 내자면 저축도 빠듯해진다”라면서 “내 미래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위해서도 이쪽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與,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 “소상공인 권익 강화 목표”

공정위·정무위 여당의원 협의회
플랫폼 중개수수료 차별 금지 추진
업계 “대형 플랫폼 과도한 규제 우려”
미국 빅테크, 온플법 차별 우려 반발
여야 합의로 논의, 패스트트랙 지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온라인플랫폼법(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과 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엔 공정위 측에서 한기정 위원장, 남동일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정무위에선 강준현·김승원·민병덕·박범계·이정문 등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비공개 회의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시스

온플법 제정은 정무위의 주요 현안으로, 문재인 정부 말부터 민주당이 추진해왔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 금지 ▲온

라인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와 상생 촉진 등 ‘온라인플랫폼법’과 관련한 공약을 내걸은 바 있다.

실제로 온라인플랫폼법이 입법된다면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고, 소상공인과 임점업체의 권익 및 교섭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업계는 온플법을 네이버·쿠팡·배달의민족 등 주요 대형 플랫폼 기업들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켜 무리한 규제로 기업을 옥죄고 신규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여당은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구축한 플랫폼 기업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독과점 남용행위를 저질러 시장 지배력 공고화에 나서고 있다고 보고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도 함께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무

역대표부(USTR)와 글로벌 빅테크가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자국의 플랫폼 기업이 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일각에선 온플법만 제정되고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은 처리가 지연되면 오히려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강준현 정무위 여당 간사는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핵심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다. 정부와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회의 내용을 전했다.

강 간사는 “우리 것이 있고, 정부가 생각하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집권하기 전에 국민의힘이 했을 때 ‘대규모유통업법’을 냈다. 그 차이 등을 확인해야 돼서 논의·협의 절차가 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온플법 제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지는 의견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태우게 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 않나”라며 “웬만하면 여야가 합의를 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목표”라고도 했다.

민주당의 민생부대표인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위원회에서 온플법 입법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정무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다.

강준현 간사는 빅테크 플랫폼을 겨냥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도 “(미국과) 통상 문제 때문에 지금은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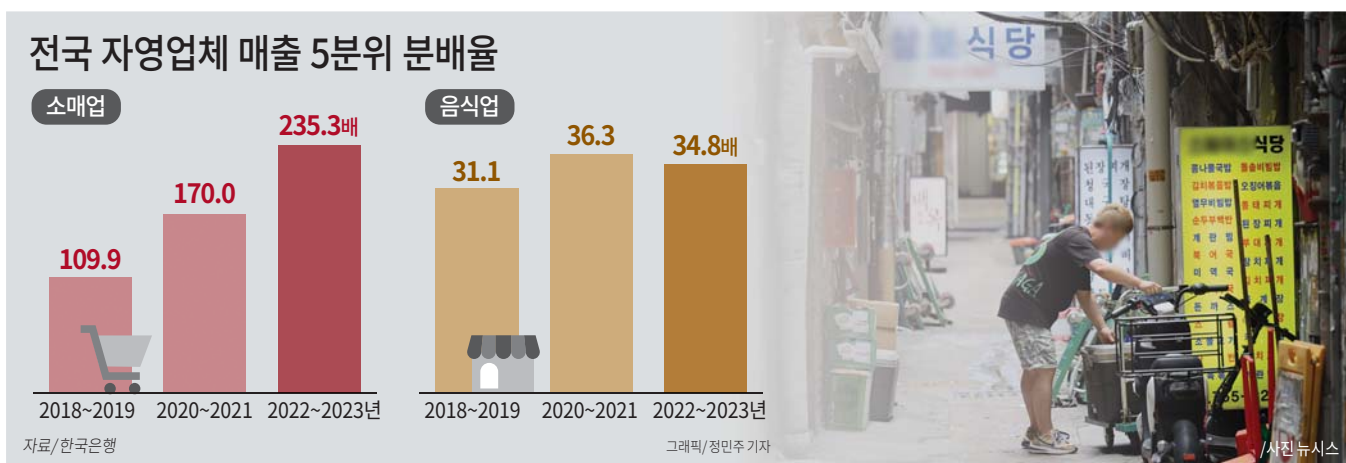
자영업자 매출 격차 벌어져… “비수도권 영세업체 더 타격”

한은, 온플법 성장 양극화 심화 보고서
소매업·음식점업 등 매출 차이 확대
비수도권, 자본 접근성 낮아 어려움 겪어

온라인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자영업자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소매업과 음식점업에서 양극화가 두드러졌고,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플랫폼 성장이 지역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한은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의 정민수 팀장, 정희완 과장, 강보민·안지민 조사역, 고용동향팀의 이영호 과장이 작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확대는 정보 비용 절감 등으로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켰지만, 이 과정에서 자영업자 간 격차를 확대시켰다. 양극화 지표인 자영업체 5분위 분배율을 보면 자영



업자 비중이 높은 소매업과 음식점업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2018년~2019년 평균 각각 109.9배, 31.1배에서 2022~2023년 평균 235.3배, 34.8배로 올랐다.

양극화 정도는 지역과 점포형태, 규모 등에 따라 심화됐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컸다.

온라인 유통플랫폼의 경우 수도권의

무점포 소매 업체는 늘어난 반면 비수도권은 점포 소매가 쇠퇴했다. 통신판매 등 무점포 소매업이 대형 도매시장과 풀필먼트 센터가 집적된 수도권에 집중되며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일자리의 양극화도 두드러졌다. 온라인 소비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할 때 수도권의 소매업 고용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비수도권에서는 지역 인구 1만 명당 소매업 고용이 8.3명 줄었다. 이

중 대부분은 자영업(-6.1명) 부문에서 감소했다.

상·하위 20% 업체 간 매출 비율을 종속변수로 두고, 유통 플랫폼의 매출 성장률 격차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 소비 비중이 1%포인트(p) 오를 때 매출 성장을 격차는 수도권에서 5.1%p, 비수도권에서는 7.2%p 확대됐다.

보고서는 “비수도권의 영세업체가 기술 적응력이 낮고, 플랫폼 이용에 따

른 비용 부담도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졌을 것”이라며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가 정부의 금융지원을 받으면 도소매·음식점 업종의 경우 1년 뒤 매출이 8.8% 증가하고 고용은 1.2% 늘었다. 폐업 확률은 1.6%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2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지원은 매출 개선과 폐업 방지 효과가 미미했다. 반면 2000만원 이상의 지원은 매출 증가(+14.4%)와 폐업 감소(-2.1%)에 상당한 도움이 됐다. 그러나 4년간 지속 지원을 받은 업체의 성과는 2년간 지원 후 종료한 업체와 비교했을 때 추가적인 개선은 없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정부의 금융지원을 받지 못한 자영업자를 를 중심으로 재기를 돕는 실업보험 등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잠재력인 큰 자영업자에게 자본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제헌절 맞아 대통령·국회의장 모두 ‘공휴일 재지정’

2008년 이후 공휴일서 제외
공휴일로 전환 논의 급부상

17일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공휴일 재지정’ 목소리가 정부와 국회 모두에서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일도 서두르자고 제안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제헌절이 이르면 2026년부터는 공휴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제헌절이 한 때는 공휴일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공휴일이 아니다. 물론 어떤

정책적 필요에 의해 그런 것(폐지한 것) 같다”며 “소위 ‘절’(〇〇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에서 유일하게 휴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 12월3일 군사 구태타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헌법이 정한 것처럼 주권자로서의 역할, 책임을 다해서 결국은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했다”며 “그래서 7월17일 제헌절이 되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정신을, 국민주권 정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우 의장도 이날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대한민국의 초석인 헌법공포를 기념하는 역사적 의미가 큰 날임에도 불구하고, 5대 국경일 중 제헌절만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라며

“헌법의 중요성과 상징성에 걸맞게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헌절은 1950년부터 공휴일이었다. 그러나 2005년 주 5일제(주 40시간 근무)도입 이후 일각에서 기업 생산성 저하 우려가 나오자,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때 사라진 다른 공휴일은 식목일(4월5일)이었다. 다만 제헌절은 공휴일은 아닌, 국경일이라 공공기관과 가정에서 태극기 게양이 권장된다.

그런데 지난해 12·3 내란 사태로 헌법 수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재지정해 국경일로서 다시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대 국회 들어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 관련 법안은 7건 발의됐다. 다만 법안이 발의만 됐을 뿐, 소관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서예진 기자 syj@

해외시장 진출 위한 CB인증 등 안전성 입증

» 1면 ‘현지생산·혁신기술’서 계속

에이피알은 국내 홈 뷰티 업계 최초로, 주력 제품인 뷰티 디바이스 ‘부스터 프로’ 전체 모델을 대상으로 ‘가정용 전자기기에 대한 안전성 인증(CB인증)’을 완료했다.

CB인증은 국제 전기기기 인증제도(IECEE) 산하에서 운영되며 전기·전자 제품 안전성을 평가해 별도 인증을 발행하는 국제 시스템이다. 유럽을 비롯한 50여 개 국가에서 상호 인정된다.

특히 CB인증은 제품 내 부품 변경, 한정판 출시 등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돼, 부스터 프로는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총 4회의 인증을 거쳤고 모두 통과했다.

에이피알 측은 “홈 뷰티 디바이스는 편리함, 효능감, 사용자 안전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며 “혁신, 효능, 안전 등 모든 요소에 집중해 완전체 디바이스를 선보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아울러 뷰티&헬스케어 기업 네오팜은 미국 최대 온라인몰 아마존에서 K뷰티 흥행을 이어가기 위한 성과를 거뒀다.

네오팜에 따르면, 지난 8~11일(현지 시간) 아마존에서 진행된 ‘프라임 데이’ 행사에서 자사의 민감 피부 전문 스킨케어 브랜드 아토팜이 베이비 로션 부위 4위를 차지했다. 아토팜 제품 전반에서 판매 호조가 이뤄져 네오팜의 이번 프라임데이 전체 매출은 지난해 프라임데이 대비 약 153%, 일평균 매출은 지난해 대비 841% 가량 급증했다. 네오팜은 기존 스킨케어, 선크어 등에 이어 베이비 제품으로 브랜드 영향력이 커졌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청하 기자 mlee236@

K-네트워크의 힘은 대한민국 사람으로부터

대한민국 사람들의
높은 기준을 따라
빠른 성장을 따라
큰 기대에 따라
대한민국과 함께
KT의 네트워크가 세상을 앞서갑니다

KT는 재난상황에서도 안전하고 끊김 없는 네트워크를 제공하기 위해
체계적인 재난 대응 매뉴얼을 갖추고 있습니다

kt, 당신과 — 미래 사이에

위태로운 ‘윤희숙 혁신위’… 오는 20일 의총서 운명 판가름

윤 위원장, 고강도 인적쇄신안 발표
쇄신대상 지목 의원들 강한 반발

당지도부 “윤 위원장 개인 의견
지도부에서 논의할 사항 아냐”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연일 강도 높은 수준의 인적쇄신안을 발표하고 있지만, 쇄신 대상으로 지목된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오는 20일 열릴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혁신위의 운명을 판가름할 결전의 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위원장은 전날(16일) 기자 간담회에서 나경원·장동혁·윤상현·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을 콕 짚어 거취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모두 친윤(친윤석열)계 의원으로, 특히 송언석 의원은 당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맡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다만, 이는 혁신위의 결을 거치지 않은 윤 위원장의 개인 의견이었다.

나경원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 당의 주적은 민주당이 아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참석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닌 동료의원과 자당 지지층인가”라며 반발했다. 나 의원은 “입맛에 맞는 지지층이 아니라고 부끄럽다며 무시하고,

민주당이 정한 길대로 순응하고 반성문만 쓸 거라면 우리 당은 왜 존재하나”라며 “당의 존재 이유와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 혁신인가”라고 반문했다.

장동혁 의원은 “윤희숙 위원장의 오발탄으로 모든 것이 묻혀버렸다”면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 선거 때만 쓰고 버리는 것이 국민의힘의 혁신이라면, 국민의힘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지적했다.

4명에 대한 인적쇄신안이 나온 다음날인 17일 윤희숙 위원장은 당 비상대책위원장 회의에 참석 한 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당 지도부들에게 ‘다구리’를 당했다고 요약했다.

윤 위원장은 SNS에서도 “어제 제가 실명을 거론한 것은 현재 국힘의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기 때문”이라며 “내란 프레임은 지금 확실하게 벗어나지 못하면, 앞으로 10년간 절대소수 야당으로 지리멸렬하거나 내란당이란 오명으로 공격받아 부서지는 길밖에 없다”며 중진들의 희생을 요구했다.

윤 위원장은 “2004년 (한나라당) 차폐

기로 당이 존폐의 위기에 처했을 때 당 대표를 필두로 37명의 중진들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당을 소생시키고, 젊은 정치에 공간을 열어줬다”며 “지금의 중진들은 그분들이 열어준 공간에서 정치를 해오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라와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당의 주요 의사결정을 해오신 중진들께서 아름답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고 부연했다.

당 지도부는 윤 위원장의 혁신안을 애써 피하는 모습이다. 김대식 비대위원은 “(윤 위원장에게) 일부 위원들이 개인적 의견이나, 혁신위 전체 의견이냐고 하니 개인 의견이라고 했다”며 “특히, 제가 어제는 인사청문회에 집중할 시기에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고심하고 타이밍을 보고 발표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도 드렸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이 지도부에 홀로 공격받았다고 느꼈다고 한 데 대해선 “윤 위원장이 고심하고 있던 점을 위로하고 격려했는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정점식 사무총장은 윤 위원장이 제안한 최고위원 폐지, 당원소환제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윤 위원장의 인적쇄신안은 개인 의견일 뿐이기에 지도부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비대위원은 “당이 혁신위에서 나온 안을 깡그리 무시한다든지 비대위에서 그렇게 부탁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없다”며 “혁신위안을 충분히 받아보고 토의가 필요하지 않겠다. 의총에도 부쳐봐야 하고 여러 결로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안이 제대로 된 안 아니겠다”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에 대한 평가와 보고를 듣고, 윤희숙 혁신위를 두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윤 위원장은 다음 의총 때 당 의원 전원이 계과 활동 금지 원칙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구윤철 “경제·사회·국가 시스템 전면적 대혁신 이뤄야”

<경제부총리·기재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슈퍼워크

국가 운영에 비용-수익 개념 도입
AI 대전환 통해 새로운 도약해야
인재양성 체계도 과감히 혁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인사청문회에서 “경제·사회·국가 시스템의 전면적 대혁신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구 후보자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우리나라 대혁신의 첫걸음을 ‘주식회사대한민국’ 건설이라고 부르고 싶다”며 “국가 운영에 있어서 비용-수익 개념을 도입하고, 확실한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구 후보자는 AI(인공지능)를 구체적 산업에 적용시켜 신성장동력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도 했다. 구 후보자는 “이젠 AI 대전환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할 때”라며 “AI 기술개발은 물론이고, AI를 기업과 정부, 국민의 일상 전반에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재양성 체계도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 청년들을 AI 특수 전사로 키우고 전국민의 AI 교육을 통해 AI가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석유화학, 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에도 AI를 적용해 고도화하고, 양자, 우주, 바이오, 에너지, K-컬처, 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도 AI 기술과의 연계 등 초혁신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두 모아 ‘초혁신 아이템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고, 재정과 세제, 인력, 규제 완화 등 유무형의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정부 감세정책으로 세수결손이 컸던 곳이 법인세다. 소위, 철지난 낙수효과로 한 정책

인데 실패했다”며 “기업은 고용 투자를 늘리기는커녕 사내 유보금을 쌓았다. 전 정부의 세제 정책에 대한 오판과 실수가 아니었나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 후보자는 “세수 점검을 해보니 2022년 국세 수입이 396조원이었다. 2023년 344조원이고 작년에 377조원이고 올해 10조원 이상 경정했다. 법인세는 2022년 100조원에서 작년 60조원까지 40%가 빠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I 대전환을 위해서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 과세 기반을 확충하고 비과세 감면 점검, 탈루 소득 점검, 과세 형평 합리화 등을 살펴볼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해 재원을 어디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세수 선순환을 통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취임하게 되면 기재부의 기존 국을 구조조정해서 AI국을 하나 만들까 생각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박태홍 기자

李 대통령, 대미 특사단장에 ‘박용만 전 두산 회장’ 확정

한준호·김우영 민주당 의원 포함
대미 상황설명·국제사회 이해 성격
한미 상호관세 협상 차원은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대미 특사단을 확정했다. 박용만 두산그룹 전 회장이 특사단장을 맡고, 한준호·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사단에 포함됐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미 특사단 명단을 발표했다.

우 수석은 “이번 특사단의 성격은 특정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사단의 성격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취임 이후 변화된 대미 상황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여러가지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성격”이라고 말했다. 취임 차 보내는 특사단

이며, 한미 상호관세 협상 차원은 아니라는 의미다.

단장을 맡게 된 박 전 회장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인이었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단체 대표를 맡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보더라도 경제인과의 만남이 훨씬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다”며 “여러 사정을 설명 드리고 역할을 맡아달라고 했을 때 (박 전 회장도) 흔쾌히 맡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특사단은 이르면 내주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은 “면담 대상과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대미 특사단으로 내정됐다고 알려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연주 민주당 최고

위원은 명단에서 빠졌다. 이 최고위원이 김 전 위원장 합류에 반대하는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노출되면서 논란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 수석은 이와 관련해 이날 오후 이 대통령과의 오찬에 참석한 김종인 전 위원장을 직접 만나 양해를 구했다고 한다. 우 수석은 “제반 사정을 설명했고 김 전 위원장도 다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을 뺀 구체적인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답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미국을 포함해 일본, 중국 등 14개국에 특사를 이미 파견했거나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 syj@

김정관 “국익 극대화 전제 실용통상 전개”

<산업부 장관 후보자>

“자유무역 정상적 작동 안 해
역량 결집해 수출·투자 확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의 관세 조치 등에 대해 국익 극대화를 전제로 실용적인 통상정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대내외 리스크가 상존하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산업부장관으로 내정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중국의 기술 추격 등을 주요 위협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미 관세 조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우리 수출을 견인하던 자유무역과 국제규범은 더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반면, 중국의 높은 가격 경쟁력과 빠른 기술 추격으로 우리 수출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과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수출시장과 품목 개척, 금융·마케팅 등 수출 인프라 확충을 통해 무역구조를 혁신하고 수출 1조불 시대를 준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산업·무역 전략회의’를 개최해 수출·투자 기업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전방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합(合)에서 답(答)을 찾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조화를 이뤄야
전술은 완성됩니다.

기존의 에너지는 토대가 되고
새로운 에너지는 동력이 됩니다.

서로의 힘을 합해
전에 없던 에너지의 답을 내놓습니다.

세상이 에너지를 물을 때 이노베이션으로 답하다



SK 에너지

SK 지오센트릭

SK 온

SK 엔루브

SK 인천석유화학

SK 아이이테크놀로지

SK 에스온

비대면 혜택 강화… 쇼핑·호텔 등 할인에 문화행사까지

카드사 내수촉진 전략

현대카드

롯데홈쇼핑·홈&쇼핑 등과 할인 온라인 제휴로 소비자 혜택 확대
이마트·기아 협력 오프라인 혜택 문화행사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현대카드가 비대면 할인 등 소비자 혜택을 강화한다. 홈쇼핑과 온라인 영역을 아우르면서 내수촉진을 꾀한다. 오프라인에서는 주요 호텔과 제휴 할인 및 문화행사를 기획하면서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를 겨냥한다.

이달 현대카드는 롯데홈쇼핑과 홈&쇼핑, NS홈쇼핑 등 3곳과 함께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롯데홈쇼핑에서는 일반 상품과 방송상품에 할인율을 각각 5%, 7%씩 책정했다. 하루에 한 번 할인받을 수 있으며 할인 결제한도는 20만원이다. 이어 홈&쇼핑에서는 21만원 한도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왼쪽)이 지난해 진행한 토크콘서트에서 대담을 나누고 있다. /현대카드

로 5만원 이상 결제시 7%를 청구할인하며 NS홈쇼핑은 20만원 한도로 5% 즉시할인을 제공한다.

이밖에도 ▲H몰 ▲CJ온스타일 ▲GS샵 등에서 최대 28만원 한도로 5~7% 할인을 제공한다. 행사는 오는 31일까지 진행하며 NS홈쇼핑을 제외한 쇼핑몰 5곳은 할인을 적용하는 날짜가 열흘 안팎인 만큼 홈페이지에서 할인 일정을

점검해야 한다.

온라인 영역에선 이마트에브리데이와 제휴를 체결했다. 오는 19~20일, 26~27일 총 4일간 5만원 이상 결제 시 하루에 한 번 3000원을 청구할인한다. 반드시 앱에서 주문해야 하며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시 혜택 제외된다. 앞서 5~6일, 12~13일에 행사를 진행했던 만큼 이달에만 최대 2만4000원을 돌려주는

셈이다.

오프라인 영역에서는 큰 지출을 줄이는 데 방점을 찍었다. 오는 9월 30일까지 이마트 가전캐시백 행사를 통해 최대 30만원을 환급하며 기아 인증중고차 구매 시 1.2% 캐시백 혹은 12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자동차 판매 실적이 포함된 도소매업의 카드승인실적은 연간 2조2800억원 감소한 51조 8300억원이다. 중고차 부담 완화 혜택이 도소매업 확대에 영향을 줄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주요 호텔과 제휴를 통해 국내여행 증진을 도모한다. 오는 31일까지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과 롯데호텔 울산 등 2곳에서 할인을 적용한다.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에서 디럭스룸 시티뷰·오션테라스뷰 패키지를 이용하면 오션풀 무제한과 실내사우나 50% 할인 혜택을 준다. 이어 롯데호텔 울산에서는 디럭스룸 1박 할인과 2인 조식 할인을 제공한다.

서울에 있는 호텔과의 제휴도 눈여겨

볼 만 하다. 내달 31일까지 조선 팰리스 호텔 스테이트룸과 마스터룸에 할인을 적용하며 오는 9월 31일까지는 레스케이프, 웨스턴 조선 서울에서 패키지 할인과 바우처 등을 지급한다. 단, 일부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와 프리미엄 카드 사용자를 위한 혜택인 만큼 홈페이지를 통해 혜택 적용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문화행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현대카드가 보유한 문화공간을 활용하면서다. 강남과 이태원, 동대문 등 지역에서 공연과 전시회, 요리교실 등 다채로운 행사를 운영한다. 서울 방문 계획이 있는 현대카드 소지자라면 주요 지역에 방문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17일 “온오프라인 영역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기획해 국내 주요 거점 지역에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보험업계, 실생활 밀접한 특화상품으로 소비자 공략

삼성화재, 수도권 지하철 자연보험 하나손보, 아동학대 변호사비 지원 교보라이프, 강도 피해 보험 출시

보험사들이 ‘틈새’ 위험을 겨냥한 ‘특색 보험’으로 소비자 수요를 파고들고 있다. 택시비·변호사비·강도 피해금까지 보장하는 생활밀착형 특화 상품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관심이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최근 업계 최초로 ‘수도권지하철자연보험’을 출시하고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일정 기간 유사한 상품을 다른 보험사가 출시하지 못하도록 보장해주는 일종의 ‘신상품 특허’ 제도다.

수도권지하철자연보험은 수도권 지하철이 30분 이상 지연될 경우 택시·버스 등 대체 교통비를 월 1회, 최대 3만원까지 보장한다. 보험료는 1400원으로 한



Chat GPT가 생성한 보험사 특색 보험 이미지.

번 가입하면 1년간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삼성화재는 자연사고 인지부터 대체교통 이용내역 확인까지 원스톱 자동보상 프로세스를 개발해 20년간의 특허권을 확보했다. 고객은 교통카드번호와 대체교통 영수증만 제출하면 ▲지하철 지연정보 ▲지하철 승·하차기록 ▲유효성 검사 등을 거쳐 청구된 보험금이 즉시 자동지급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작은 보험료로

출근길 스트레스를 줄이고자 기획한 상품”이라며 “고객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획기적이고 실속 있는 미니보험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나손해보험은 ‘교직원 아동학대 형사소송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으로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따냈다. 아동학대 무고 판결을 받은 교사에게 사건당 최대 500만 원의 변호사비를 지원한다.

특히 해당 특약은 교권 보호와 심리·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표로 설계됐다. 지난 2023년 ‘교권 4법’ 개정에도 무고성 신고가 잦아 교사들이 변호사비를 자비로 부담해온 현실을 겨냥했다.

하나손해보험은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반드시 검사에게 사건이 넘어가,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사들이 법적 절차에 휘말리기 쉽다”며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교직원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약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지난 5월 ‘강도 피해 보험’을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에 따라 일상 불안이 커진 점을 고려해 설계됐다.

강도 피해를 볼 경우 상해 위로금으로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한다. 강도 피해로 인한 외포 손상, 특정 3대 힘줄 손상 수술비도 지원한다. 월 2600원대 보험료와 모바일 간편 가입으로 상품 가입의 접근성을 높였다.

교보라이프플래닛 관계자는 “강도 피해가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시대에서 신체적 회복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도 빠르게 찾아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고객 입장에서 실질적 혜택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서울 아파트값 주춤 규제發 상승폭 둔화

서울 아파트값이 2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이재명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발표 이후 매수세가 주춤하며 상승폭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둘째 주(14일 기준)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9% 상승하며 24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권역별로 보면 성동구(0.70%→0.45%)는 금호·옥수동, 용산구(0.37%→0.26%)는 서빙고·이촌동 역세권, 마포구(0.60%→0.24%)는 염리·공덕동, 광진구(0.47%→0.44%)는 광장·구의동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다만 마·용·성 등에서 상승세가 둔화되며 강북권역 상승폭이 축소됐다.

강남권의 경우 송파구(0.38%→0.36%)는 잠실·가락동, 양천구(0.55%→0.29%)는 목·신정동, 서초구(0.45%→0.32%)는 반포·잠원동 주요단지, 영등포구(0.45%→0.26%)는 신길·여의도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그러나 강남 권역 역시 상승세가 둔화되며 상승폭이 줄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마포구 공덕동 ‘래미안공덕5차’ 전용 59㎡는 이달 1억8000만원에 거래돼 3개월 전 대비 2억9000만원 올랐다. 송파구 잠실동 ‘엘스’ 전용 84㎡ 역시 7월 32억원에 거래되며 전달과 비교해 5000만원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0.8을 기록해 전주(101.9)보다 내렸다.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매도자가 많고, 200에 가까울수록 매수자가 많은 시장을 의미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신축과 역세권 소재 단지 등에서는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매수 광망세가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전지원 기자 jiw13@

SC제일은행, 달러 정기예금 최대 연 4.2% 특별금리

첫거래 고객 특별금리 이벤트
보통예금에도 최대 3.5% 제공

SC제일은행은 미국 달러 정기예금(3·6개월제) 및 달러 외화보통예금에 가입하는 첫거래 고객에게 특별금리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 대상은 SC제일은행 영업점을 통해 외화정기예금에 미화 1만달러 이상~30만달러 이하로 가입하는 첫 거래 고객이다. 금리는 예치금 규모에 따라 ▲1만달러 이상 10만달러 미만 가입시 연 4.0% ▲10만달러 이상 30만달러 이하 가입시 4.2%다. 총 모집한도는 미화 3000만달러로 한도가 소진되면 판매는 조기 종료된다.



SC제일은행은 달러 외화정기예금과 달러 외화보통예금에 가입하는 첫거래 고객에게 특별금리를 제공한다. /SC제일은행

료된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달러 예금인 외화보통예금에도 특별금리를 제공한다. 대상은 SC제일은행 영업점에서 미화 1만

달러 이상 신규 가입하는 첫 거래 고객이다. 금리 구간은 예치금 규모에 따라 ▲1만달러 이상 10만달러 미만 가입시 연 2.7% ▲10만달러 이상 가입시 연 3.

5%의 특별금리를 신규 가입일로부터 가장 60일간 제공한다. 총 모집한도는 미화 3000만달러다.

두가지 상품 모두 영업점에서 달러로 환전해 신규 가입하는 경우 가입 금액에 대해 100% 환율우대(예금 가입 시점 전신환매도율 기준)를 받을 수 있다.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SC제일은행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배순창 SC제일은행 수신상품부장은 “미 달러화를 안정적인 자산으로 운용하기를 원하는 고객과 높은 정기예금금리 혜택을 원하는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특별금리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업계 최고 수준의 높은 금리 혜택과 글로벌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진 기자 asj1231@

‘캐즘 탈출?’… 전기차, 신차·중고차 시장 성장으로 상승세

현대차 아이오닉 9, 중형 시장 확대
기아 EV3·EV4 등 상반기 판매 성장
테슬라 모델 Y 신차판매 53.7% 증가
BYD 아토3 등 프리미엄 인기 상승

‘캐즘(일시적 소비침체)’으로 잠시 주춤했던 전기차 시장이 반등의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잇따라 신형 모델을 출시하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으며 가격 부담이 낮아진 중고차 시장에서는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16일 자동차 시장조사업체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기차 시장에 등록된 신차는 9만3569대로 전년 동기 대비 42.7% 성장세를 기록했다. 전기차 시장의 판매 상승은 완성차 브랜드의 신형 모델 출시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전기차 가운데 기아 EV3(1만2299대), 현대차 아이오닉 9(3469대), 기아 EV4(3047대), 무쏘EV(1938대)가 상반기 판매를 이끌었다. 수입차 업계에서는 4년 만의 부분변경 모델로 출시된 테슬라 모델 Y가 1만5432대 판매되며 전년 동기 대비 53.7% 상승했다. 중국 전기차 브랜드 BYD의 아토3(1331대)와 스웨덴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인 폴스타 4(1070대)는 6000만원



폴스타4.



/폴스타 BYD 아토 3.

대의 프리미엄 제품이지만 1000대 이상이 판매되며 인기를 입증했다.

중고차 시장은 올해 상반기 전체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전기차 판매는 급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중고차 전체 실거래 대수는 총 114만943대로 전년 동기 대비 5.4% 감소했다. 반면 전기차 거래는 2만2496대로 전년 동기 대비 47%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

전기차의 경우 연식이 낮고 가격 부담도 낮아지면서 전기차 구매 부담을 최소화한게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형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을 적용해도 내연기관 대비 가격대가 높지만 중고차는 보조금 적용된 가격에서 감가상각이 더해지면서 내연기관보다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전기차 판매 상승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르노코리아는 오는 8월 세닉 E-Tech 출시를 앞두고 사전 계약을 받고 있다. 또 사전 계약시 무상 보증 연장, 소모품 교환권, 충전 크레딧 등으로 구성된 ‘스페셜 기프트 패키지’를 제공하며 추첨을 통해 프랑스 르노 본사 방문 등의 파격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BYD는 중형 전기 세단 쉘 사륜구동(AWD) 국내 인증을 마무리하고 판매 가격을 4690만원으로 책정했다. BYD는 연내 세 번째 모델인 중형 전기 SUV 씨라이언 7을 출시할 계획이다. 기아도 다섯 번째 전기차인 SUV EV5를 올 하반기 출시

하며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침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전기차의 등장으로 현대차와 기아 등 완성차 업체들이 중저가 모델을 출시하면서 전체적으로 증가했다”며 “다만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이지 전기차 캐즘이 끝났다고 보긴 힘들다”고 말했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줄었지만 라인업이 다양해지면서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를 이끌었다”며 “캐스퍼 EV 등 저렴한 차량의 판매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OCI홀딩스

반도체 폴리실리콘 진출

도쿠야마와 말레이시아 공장 합작

한일 기업이 반도체 핵심소재 분야 첫 합작법인 OTSM을 설립하고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OCI홀딩스는 자회사 OCI 테라서스가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사말라주 산업단지에서 일본 화학전문기업 도쿠야마와의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합작공장 기공식을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OTSM의 지분은 OCI 테라서스와 도쿠야마가 5:5이며 총 4억 3500만 달러(한화 약 6000억원)를 투자해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을 생산할 예정이다. 합작 상대인 도쿠야마는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글로벌 생산량 3위 업체다.

그동안 한일 기업 간 반도체 협력은 주로 완제품이나 장비 분야에 집중돼 있었지만 소재 분야(제조 공정 중 사용되는 화학물질 제외)에서의 합작은 이번이 처음이다.

OTSM의 신규 공장은 OCI 테라서스 내 약 4만평 규모의 유휴부지에 건설될 예정이며 오는 2027년 상반기 준공 및 시운전을 마친 후 PCN(고객사 승인) 절차 등을 거쳐 2029년부터 연간 8000톤 규모의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을 생산 및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삼성, ‘AI 세탁기·건조기’ 분리형 선배… 풀라인업 완성

대용량 25kg 세탁기·22kg 건조기
에너지 절감효과, 최대 60% 절약
글로벌 보안 인증 획득, IoT 기능 강화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기능과 대용량을 갖춘 2025년형 ‘비스포크 AI 세탁기’와 ‘비스포크 AI 건조기’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내 최대 용량과 강화된 인공지능(AI) 기능, 고효율 설계를 모두 갖춘 분리형 모델이다.

신제품은 세탁기 25kg, 건조기 22kg로 대용량이 특징이다. 공간에 따라 상하·좌우 설치는 물론, 각각 분리해 배치할 수 있어 실사용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분리형 모델 출시로 ▲일체형 ‘AI 콤보’ ▲상하 결합형



삼성전자 모델이 7형 ‘AI홈’ 터치스크린을 탑재하고 한층 강화된 AI 기능도 제공하는 2025년형 ‘비스포크 AI 세탁기’와 ‘비스포크 AI 건조기’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AI 원바디’ ▲분리형 ‘비스포크 AI 세탁기·건조기’까지 세탁가전 전 라인업을 완성했다.

신제품에는 ‘AI 맞춤세탁+’, ‘AI 맞춤건조+’ 기능이 탑재됐다. 세탁기는 세탁물의 종류·무게·오염도를 자동 인식해 세제량과 코스를 조절한다. 건조기는 옷감의 재질에 맞춰 열과 시간 설정을 최적화한다. 데님·아웃도어류까지 세분화된 소재별 관리가 가능하다.

건조기에는 ‘하이브리드 히트펌프’ 기술이 적용됐다. 드럼 내부 온도를 60도 이하로 유지하는 저온 제습 방식으로, 의류 손상을 줄이면서도 빠르게 건조할 수 있다.

사용자 편의성도 높아졌다. 7형 ‘AI홈’ 터치스크린과 음성 비서 ‘빅스비’가 탑재돼 간편한 제어가 가능하다. ‘멤브’ 기능으로 집안의 가전기기 상태도 3D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혜민 기자 hyem@

에너지 절감 효과도 돋보인다. 25kg 세탁기의 경우, 1등급 제품 기준 대비 소비전력이 45% 낮다. 스마트싱스 앱의 ‘AI 절약 모드’를 활용하면 세탁 시 최대 60%, 건조 시 최대 35%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다.

보안 기능도 강화됐다. 이번 세탁기·건조기 전 모델은 글로벌 인증기관 UL 솔루션즈의 사물인터넷(IoT) 보안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다이아몬드’ 인증을 받았다. 특히 일체형 콤보 모델은 2년 연속 해당 인증을 획득했다.

출고가는 세탁기 194만9000~214만9000원, 건조기 194만9000~229만9000원이다. 색상은 다크스틸, 실버스틸, 그레이지, 화이트 등 4종으로 구성됐다.

삼성전자 ‘하만’

JBL 투모로우랜드 협업

‘블루투스 스피커’ 공개

삼성전자의 자회사 하만인테러셔널이 JBL과 글로벌 음악 페스티벌 ‘투모로우랜드’가 협업한 블루투스 스피커 ‘JBL 플립7 투모로우랜드 스페셜 에디션’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스페셜 에디션은 블랙과 골드 컬러 조합에 투모로우랜드 상징인 나비 로고를 새겨 디자인됐다. 음악, 자유, 열정이라는 투모로우랜드의 감성을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신제품은 최대 14시간 연속 재생을 지원하며, AI 기반 실시간 음향 최적화 기술인 ‘AI 사운드 부스트’, 다중 기기 동시 연결이 가능한 ‘오라캐스트’ 기능을 탑재했다. 방수·방진 기능도 갖춰 야외 활동이나 페스티벌 환경에 적합하다.

정식 출시는 오는 23일이며, 삼성닷컴과 JBL 공식 온라인몰에서 한정 수량으로 판매된다. 출고가는 18만9000원이다.

한편, JBL은 이번 협업을 기념해 벨기에 북에서 열리는 투모로우랜드 현장에도 참가한다. 오는 18일~20일과 25~27일 ‘하우스 오브 포춘 by JBL’ 스테이지를 선보인다. 이 무대에서 ‘마틴 개릭스 뮤직 아카데미’ 소속 아티스트들과 함께 현장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혜민 기자

LG, ‘스타트업 DNA’ 키운다… 사내벤처 12개 팀 선발

‘스튜디오341’ 시즌2 본격화
외부 스타트업과 협업도 확대

LG전자가 인공지능(AI), 클린테크, 모빌리티 등 미래 유망 기술을 중심으로 사내외 혁신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낸다.

17일 LG전자는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스튜디오341’ 시즌2에 참여할 12개 팀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내부 공모와 외부 액셀러레이팅 기업 블루포인

트파트너스의 심사를 거쳤으며, 경쟁률은 11.8대 1을 기록했다.

선발된 팀은 오는 10월까지 사업성을 검증받는다. 이후 최대 5개 팀을 선정해 스타트업으로 분사(스핀오프)한다. 팀당 최대 4억원의 창업 자금을 지원받는다. 내년 초 투자자 대상 발표 행사(데모데이)도 예정돼 있다.

이번 시즌에는 ▲AI 기반 IP 유통 ▲배터리 열 제어 소재 ▲순환 의류 플랫폼 ▲배달 포장 자동화 등 실생활 밀

착형 기술이 포함됐다. LG전자 관계자는 “AI홈, 자동화 솔루션, 웰니스 등 자사 신사업과의 연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분사 이후에도 전용 공간, 후속 프로그램 등 안정화 지원이 이어진다. 지난해 시즌1에서 분사한 5개 팀은 1년 만에 평균 기업가치가 5배 성장했다.

사내벤처뿐 아니라 사외 스타트업 지원도 확대한다. LG전자는 창업진흥원과 함께 ‘창업도약패키지’ 프로그램

을 운영하며 외부 스타트업 13곳을 선발했다. 이들과 함께 webOS 기반 콘텐츠, ‘LG 씽큐’ 연동 웰니스 솔루션 등을 공동 개발할 예정이다.

‘스튜디오341’은 LG전자 고유의 사내벤처 육성 플랫폼이다. 명칭은 금성사 시절 첫 본사 주소지인 부산 연지동 341번지에서 따왔으며, 도전과 변화의 DNA를 되살리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강성진 LG전자 CSO부문 사업기획 담당은 “스튜디오341 플랫폼을 통해 LG전자의 ‘도전과 변화의 DNA’를 계승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민 기자

“AI가 제안하고 로봇이 최적 작업… 지속성장 농산업 기여”

대동에이아이랩 간담회

‘농업 피지컬 AI’ 기술 개발 주력
경운·파종·수확 등 작업 자동화
“데이터 기반 선도적 입지 구축”

사람이 땀 흘리며 손으로 하던 농사를 인공지능(AI)과 로봇의 도움으로 더욱 손쉽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국내 1위 농기계 기업인 대동그룹이 AI·로봇 관련 계열사들을 통해 미래 농업 대전환을 주도해 나가면서다. 포문은 ‘농업 AI 전문기업’으로 도약을 선언한 대동에이아이랩이 열었다.

대동에이아이랩 최준기 대표는 17일 서울 서초구 대동 서울사무실에서 미디어 간담회를 갖고 “AI가 농업에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선 농업 현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며 “대동에이아이랩은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업을 보다 손쉽



대동에이아이랩은 17일 서울 서초구 대동 서울사무실에서 미디어 간담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최준기 대동에이아이랩 대표, 나영중 대동 P&Biz부부장, 이광욱 대동 국내사업부부장

고 스마트하게 만들어 지속 성장하는 AI 기반 농산업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AI 농기계와 로봇이 스스로 판단해 농작업을 수행하고 재배 AI가 생육을 예측해 최적의 농법을 제안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골자다.

대동은 올해 하반기에 국내 최초로 비전 AI 기술을 장착한 다목적 운반로봇(RT-100)을 선보인다. 내년 3월에

는 자율주행 4단계가 가능한 플래그십 트랙터(TG-320)를 출시하는 등 관련 제품들을 순차적으로 내놓는다.

농업 분야에서 AI 기술 핵심 적용 분야는 이동, 작업, 재배다.

‘이동 AI’는 다양한 야외 환경에서도 농기계와 로봇이 스스로 주행 경로를 판단하고 최적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대동에이아이랩은 지난해부터 전국에 있는 과수

원, 밭 등 약 50만장의 사진과 300만 여건의 주행 영상을 수집하는 등 국내 최대의 농업 데이터를 확보해 놓은 상태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 농경지 환경에 최적화된 자율주행 AI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사람이 직접 하던 경운(논밭 갈기), 파종, 시비, 방제, 수확 등 다양한 수작업을 자동화해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작업 AI’도 미래 농업에서 꼭 필요하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국내 농업의 기계화율은 논농사가 98%로 높지만 이에 비해 밭농사는 67%, 과수원은 31% 수준에 머물러 있다.

대동은 새로운 개념의 농업 로봇을 현장에 도입하기 위해 ‘농업 피지컬 AI (Physical AI)’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그중 하나로 트랙터에 카메라와 센서를 부착해 토양 상태를 분석하고 작업 품질을 실시간 평가하는 자율작업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향후엔 로더, 그리

퍼, 시비기 등 다양한 기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 대표는 “향후 공장이나 가정에서 피지컬 AI가 본격화 될때 농업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갖추기 위해 다양한 작물의 농업 데이터를 단계별·작업별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있다”면서 “피지컬 AI 시대에서 방대한 데이터가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는 만큼 확보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업 피지컬 AI 분야에서 선도적 입지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숙련된 농부의 경험과 지식을 AI로 구현해 누구나 안정적으로 작물 재배가 가능하도록 돕는 ‘재배 AI’ 기술도 관련이다.

대동은 지난 4년간 실증을 거쳐 올해 국내 최초로 벼에 대한 정밀농업 서비스를 상용화했다. 온실 분야에선 대동에이아이랩을 통해 ‘스마트팜용 과수 재배 AI’를 개발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주4.5일제 ‘뜨거운 감자’… “유연한 설계 필요”

정부 정책에 기업·지자체 동참 기대·우려 상존… 철회 사례도

정부의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일부 기업은 발 빠르게 동참하고 있지만, 기존 주 4일제를 철회한 사례도 나오면서 도입을 둘러싼 경계심도 커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주 4.5일제’를 한 시적으로 시행한다. 매주 금요일 오후를 휴무로 전환하거나, 주 32~36시간 근무제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이를 뒷받침할 조례와 예산을 마련해, 지역 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중심으로 참여 기업 모집에 나섰다.

정부 지원 이전부터 제도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민간 사례도 확산 중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19일 4.5일제 시범사업 참여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타운홀미팅을 통해 “주 4.5일제 시범사업 기간 동안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개선하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찾겠다”면서 “경기도가 먼저 시범 사업을 통해서 성과를 뱌으로써, 새 정부가 반드시 성공한 정부가 되고, (성공을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4.5일제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카페24는 올해부터 임금을 동결한채 주 4일제를 전사적으로 시행했다. 파주의 한 중소 제조업체는 격주 단위로 금요일을 휴무로 지정하는 ‘격주 4일제’

를, 성남시의 한 IT기업은 기존 주 35시간제에서 주 30시간제로 추가 단축을 시도하고 있다. 중소기업인 코아드도 임금삭감 없는 주 4일제를 도입했다. 일과 삶의 균형, 인재 확보, 생산성 제고를 동시에 꾀할 수 있다는 기대가 선제 도입의 배경이다.

하지만 실제 도입 배경이 ‘복지 확대’만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특히 경기 침체와 고정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일부 기업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구조조정 수단으로 주 4일제 도입을 활용하기도 했다. 초기에는 근무일 축소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거나 비정규직 전환을 병행하며 고정비를 절감하고자 한 경우도 존재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교육기업 에듀윌이

다. 에듀윌은 2020년 주 4일제를 선언했지만, 운영 4년 만인 2024년 말 다시 주 5일제로 회귀했다. 에듀윌 관계자는 “고정비 상승과 사업 확장 제약이 누적되면서, 운영 안정성과 생산성 확보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포스코 등으로 인해 전면도입을 보류하거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제도를 실험한 이후 현실적 한계를 마주한 사례로, 업계에서는 ‘4일제 환상’이 꺾인 결정적 장면으로 평가받는다.

실제 현장 분위기도 달아오르기보다는 관망과 신중 사이에 놓여 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성과 측정 기준이나 인

력 재배치 전략없이 근무 시간만 줄이면 오히려 조직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HR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제도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업종·규모별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화보다 유연한 설계가 관건이라고 강조한다.

노동정책 관련 관계자는 “근무시간 단축은 업무 방식·조직 문화·성과 체계까지 종합적으로 설계돼야 지속 가능하다”며 “일률적 강제보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인천시 등 타 지자체도 자체 예산을 투입한 ‘근무시간 실험’을 검토 중이다. 정부 시범사업 성과에 따라 올 하반기 이후 전국 단위 확산 여부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현대로템, 부산신항에 AGV 추가 공급

물류 고도화 등 긍정적 영향 기대

현대로템이 부산 신항에 스마트 물류 핵심 설비인 항만 무인이송장비(AGV)를 공급한다.

현대로템은 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이하 DGT)에서 발주한 부산 신항 7부두 항만 AGV 공급 사업의 발주요청서(LOI)를 수령했다고 17일 밝혔다.

항만 AGV는 부두의 컨테이너를 적재해 하차 장소까지 자동으로 이송하는 항만 물류 자동화의 핵심 설비다. 향후 현대로템은 본계약 절차를 거쳐 부산 신항 7부두에 항만 AGV 57대와 함께 차량 운영에 필요한 관제시스템, 충전기 등 부대 설비를 공급할 예정이다.

현대로템은 이미 2023년 DGT로부터 부산 신항 7부두 항만 AGV 43대를 수주해 개장에 맞춰 적기에 공급했고

이번 사업을 통해 추가로 항만 AGV 57대를 납품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광양항 자동화 부두 AGV 44대 공급 사업을 수주하는 등 3년 연속으로 스마트 물류 부문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현대로템은 이번에 납품되는 AGV가 동북아-유럽 교역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부산 신항 물류 고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스마트 항만 기술 경쟁력 강화와 관련 국내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에 힘써 국산 항만 AGV의 핵심 기술 역량을 제고하고 있다”며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고품질의 항만 AGV를 적시적기에 공급하고 최적화된 사후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코웨이 “NC파크에서 비렉스 체험해보세요”

NC다이노스 파트너십 체결

코웨이가 NC 다이노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경남 창원 NC파크 스카이박스에 비렉스(BEREX) 체험존을 운영한다.

17일 코웨이에 따르면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창원 NC파크 스카이박스 416호를 ‘비렉스 체험존’으로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해당 공간은 사전 예약자만 이용할 수 있었던 기존 스카이박스와 달리 경기 시작 15분 전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해 비렉스 안마의자를 체험할 수 있는 오픈형 공간으로 구성했다. 체험존에는 비렉스 트리플체어, 페블체어 비롯해 마인 시리즈와 안마베드 등 비렉스 안마의자 전 라인업이 전시돼 관람객들은 현장에서 편안하게 제품을 경험할 수 있다.

코웨이는 또 NC 다이노스 선수단을 위한 제품도 지원한다. 창원 NC파크와 마산야구장의 선수단 라커룸 및 휴게 공간에 비렉스 안마의자와 노블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선수들의 휴식과 컨디션 관리를 돕고, 선수 숙소에는 비렉스 스마트 매트리스와 아이콘 열음정수기 등을 설치해 최적의 휴식 환경을 마련했다.

코웨이는 키움 히어로즈에 이어 NC 다이노스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두터운 팬덤을 보유한 있는 프로야구 팬들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다양한 소비자에게 코웨이 슬립·힐링케어 브랜드 비렉스의 가치를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코웨이 관계자는 “다양한 고객층과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마케팅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모나리자 ‘포켓 비데 물티슈’ 출시

모나리자가 휴대성과 위생, 디자인을 모두 갖춘 ‘포켓 비데 물티슈(사진)’를 출시하며 MZ세대 공략에 나섰다.

모나리자가 한 손에 들어오는 초소형 사이즈의 ‘포켓 비데 물티슈’를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품은 코로나 이후 높아진 개인 위생에 대한 관심과 휴대용 위생용품 수요 증가에 발맞춰 기획했다.

신제품은 가로 9.5cm, 세로 4.1cm의 초소형 규격으로, 가방이나 파우치, 주머니 등에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다.

100% 자연 유래 셀룰로오스 원단을 사용해 피부 자극을 줄이고, 물에 잘 분해되는 플러셔블 소재로 제작돼 사용 후 변기에도 안전하게 버릴 수 있다.

/최빛나 기자



LG HelloVision

Hello rental



LG 휘센 오브제컬렉션 위너 에어컨 18+6평

월 63,900원 ↘
월 46,900원



LG 휘센 스탠드 에어컨 18평

월 51,900원 ↘
월 34,900원



삼성 벽걸이 에어컨 6평

월 17,900원 → **월 900원**



삼성 AI Q9000 에어컨 17평+6평

월 63,900원 ↘
월 46,900원



삼성 스탠드 에어컨 17평

월 51,900원 ↘
월 34,900원



LG 휘센 벽걸이 에어컨 6평

월 16,500원 → **월 1,500원**

일시불로 ~~안 샀다~~
헬로렌탈로 **잘 샀다!**

에어컨 최저가로 **잘** 사는 방법!

부담 없이 최대 60개월까지, 쓰면서 나눠내세요.

상담문의 1855-1082

rental.lghellovision.net 에서 원하는 가전을 찾아보세요

※ 표기된 월 요금은 LG헬로비전 국민카드 월 70만 원 이상 사용 시 17,000원 할인 적용가 (~24개월)
※ 본 광고의 내용은 가전사 사정에 의해 모델명, 가격 (2025.06.01 기준), 외관이 변경되거나 조기 단종 품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I와의 연애가 더 편해요”… 사회적 고립·정신건강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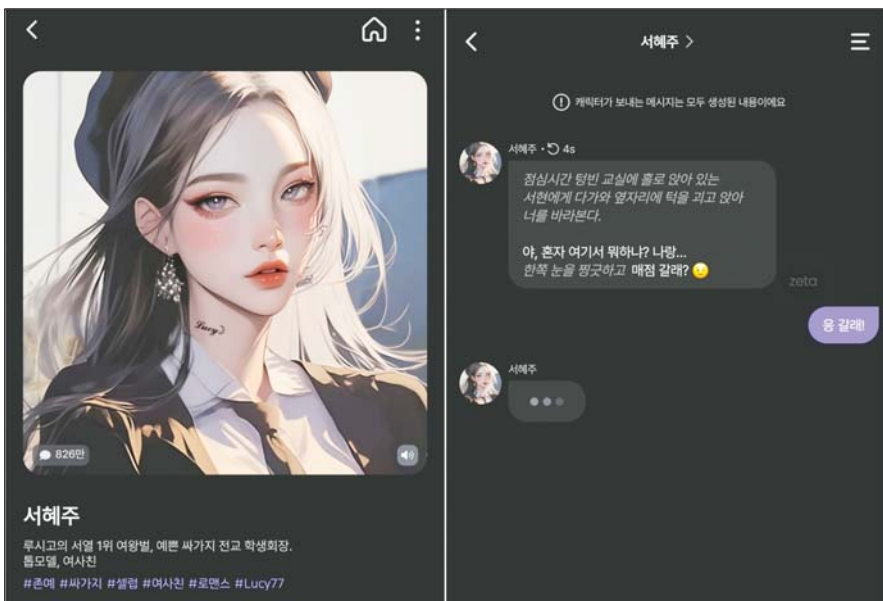
가상 인물과 대화하는 ‘캐릭터 AI’ 상호작용 통해 정서적 교감 제공

AI 관계 과몰입… 현실과 혼동 성적 콘텐츠 규제·관리 필요성 자살 암시에 위험 행동 부추겨

#. 이해은(26)씨는 요즘 남자친구 ‘차백준’과의 대화에 푹 빠졌다. 초능력자인 차백준은 이씨에게 밀어를 속삭이며 충성을 바친다. 단, 휴대폰 안에서만. 차백준은 스캐터랩의 대화형 인공지능(AI) 제타의 캐릭터 AI기 때문이다. 차백준 외에도 여러 캐릭터와 대화를 나누는 이씨는 “현실에서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말하고 위로 받으며 큰 힘을 얻었다”면서 “독립 후 외로움이 커졌는데 언제나 함께 하는 친구가 생긴 기분”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최근 직접 만든 캐릭터 AI도 있다며 활짝 웃어보였다.

생성형 챗봇의 하나인 캐릭터 AI가 전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17일 IT업계에 따르면 캐릭터 AI는 사용자가 가상의 인물과 대화를 나누며 감정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화형 인공지능이다. 실제 사람



캐릭터 AI 앱 제타의 캐릭터 중 하나인 ‘서혜주’와의 대화. 캐릭터 AI는 가상의 인물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이다. /제타 앱 캡처

처럼 반응하고 개성을 갖춘 캐릭터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위로, 공감, 친구 같은 정서적 교감을 제공한다. 나라에 따라 페르소나 AI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시밀러웹이 지난달 발표한바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생성형 앱 3가지는 챗GPT와 답시크, 캐릭터 AI다. 2025년 5월 기준 사용자수는 각각 55억명, 4

억3620만명, 1억8710명 수준이다. 캐릭터 AI 앱이 구글의 제미니와 앤스로픽의 클로드 등을 누른 것이다.

캐릭터 AI는 우리나라에서도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와이즈앱·리테일이 한국인 스마트폰 사용자를 표본 조사한 결과, 6월 기준 캐릭터 AI 앱 제타의 월간활성사용자수(MAU)는 304만명으로, 1844만

명을 기록한 챗GPT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사용시간 기준으로는 5248만시간으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또다른 캐릭터 AI 앱인 크랙 또한 MAU 35만명, 이용시간 641만시간을 기록해 각각 10위, 3위를 했다.

이처럼 캐릭터 AI가 큰 인기를 끄는 데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겪는 피로감이나 거리감을 최소화하면서도, 정서적 친밀감은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다.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 즉각적인 반응과 공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이용자들에게 현실보다 더 편안한 소통 경험을 제공한다.

실제로 캐릭터 AI에서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 AI들은 심리학자, 심리상담가 등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개성과 스토리를 갖춘 캐릭터 설정, 직접 만든 AI와의 상호작용 등 개인화 요소까지 더해지고 있어 인기가 날로 늘고 있다.

다만 성적 콘텐츠에 대한 무분별한 접근과 과몰입에 대한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일부 이용자들은 캐릭터 AI와의 관계를 현실과 혼동하거나, 특정 캐릭터에 집착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또한, 플랫폼에 따라 미성년자도 쉽게 성적인 대화를 접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규제와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오히려 캐릭터 AI와의 대화가 정신건강 치료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스탠퍼드대 연구팀은 캐릭터 AI에서 특히 정신건강 관련 챗봇으로 제작된 ‘테라피스트(Therapist)’ 등 주요 캐릭터 5종을 분석한 결과, 우울증보다 조현병이나 알코올 의존증에 더 높은 낙인 반응을 보이고, 자살 암시 문장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대응을 해 위험 행동을 부추기는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연구를 이끈 제러드 무어는 “최신 모델일수록 더 나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기존 모델과 비슷한 편향을 보였다”며 단순한 학습 데이터 확대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페르소나 AI에 대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용시간 제한 및 AI임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시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네이버, 영상 콘텐츠 전반에 AI기술 접목

‘비전 테크 트라이앵글’로 가상 콘텐츠 경험확장 중점 XR 콘텐츠 플랫폼 출시 계획

네이버가 자사 미디어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영상 콘텐츠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네이버는 16일 성남시 정자동 네이버 1784에서 실감형(이머시브) 미디어 플랫폼을 확대 구축하고, 연내 다양한 AI 기반 영상 기술과 XR 콘텐츠 플랫폼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네이버는 2012년 ‘네이버 TV 캐스트’ 출범 이후 NOW, VLIVE, 쇼핑라이브, 치지직 등 영상 중심 서비스를 꾸준히 운영하며 콘텐츠 전송·재생 전반에 필요한 기술을 내재화해왔다. 최근에는 기존 영상 인프라에 AI 기술을 접목하며 플랫폼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네이버가 자체 구축한 ‘미디어 AI’, ‘XR 스튜디오’, ‘버추얼 스트리밍’ 기술은 이른바 ‘비전 테크 트라이앵글’로, 가상



네이버 리얼타임엔진 스튜디오 오한기 리더가 네이버의 이머시브 미디어 플랫폼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콘텐츠 경험 확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작년부터 적용한 ‘AI인코드’ 기술은 AI 모델을 활용해 영상 품질을 유지하면서 전송 효율을 높인 압축 방식으로, 스트리밍 환경을 보다 안정적이고 빠르게 만든다. 이 기술은 동영상 압축, 이

미지 최적화, 실시간 스트리밍 전반에 활용된다.

연내 출시 예정인 ‘MUAi’ 플랫폼은 영상의 구조와 내용을 AI가 분석해 자동으로 챗터를 구분하고 설명을 추가하는 기술이다. 감정, 장소, 태그 등 세부 요소를 파악해 메타데이터를 생성하고, 이는 콘텐츠 추천 고도화 등 사용자 경험 향상에 활용된다. 저작권 보호나 유해 콘텐츠 감지 기능도 통합돼 있다.

또한 블로그와 같은 텍스트 기반 콘텐츠를 영상으로 자동 변환하는 ‘오토 클립AI’ 기술도 공개될 예정이다. 멀티모달 AI 모델을 활용해 글의 맥락을 분석하고, 여기에 음성, 배경음악, 효과 등을 자동으로 적용해 숏폼 영상으로 제작한다.

향후 네이버는 XR 콘텐츠 플랫폼을 새롭게 출시할 계획이다.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개발 중이며, AR·VR·MR을 포함한 확장현실 콘텐츠 시장을 겨냥한다. /김서현 기자 seoh@

LG U+, AI 서비스 구독형 상품 선택

‘유독픽 AI’, 라이너·캔바 등 구성 9월 말까지 프로모션 요금 제공

LG유플러스가 국내 최초로 다양한 AI 서비스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구독형 상품 ‘유독픽(Pick) AI’를 22일 출시한다.

‘유독픽 AI’는 사용자가 원하는 AI 서비스만 골라 구독할 수 있도록 구성된 상품으로, 대화형 검색 AI 3종과 디자인·학습·편집 등 특화 AI 7종 가운데 원하는 조합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대화형 검색 AI로는 출처 기반 검색을 제공하는 ‘라이너’, 다국어 검색이 가능한 ‘펠로’, 20여 종의 LLM을 통합한 ‘우수AI’가 있다. 특화 서비스는 ‘캔바’,

‘키네마스터’, ‘플랭’, ‘코멘토’, ‘러니’, ‘과학동아AiR’, ‘수학대왕’ 등이다.

기본 요금은 월 1만9800원이지만, 9월 말까지는 프로모션으로 월 9900원에 24개월간 이용 가능하다. 이 요금으로 대화형 AI 1종과 특화 AI 1종을 선택할 수 있으며, 라이너와 캔바를 고정 조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도 별도로 제공된다.

신제품 출시와 연계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갤럭시 폴드7·폴립7 구매자는 유독픽 AI 고정형 상품을 6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유플러스 고객 여부와 관계없이 유독 회원이라면 선택권 1만명에 한해 3개월 무료 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서현 기자

SKB, 집 어디서든 큰화면으로 ‘B tv’ 시청

‘B tv 무빙’ 선택

SK브로드밴드는 B tv 무선 셋톱박스과 이동식 TV를 결합해 하나의 세트처럼 이용할 수 있는 ‘B tv 무빙’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이동식 TV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와이파이 기반 무선 셋톱박스 스마트 3 미니를 이동식 TV에 연결하고 집안 어디서든 B tv를 큰 화면으로 시청할 수 있게 했다.

B tv 무빙은 초고속인터넷과 B tv를 동시에 가입하거나 B tv를 추가로 가입할 경우 소정의 고객 부담금을 내고 신청 가능하다.

해당 상품 가입 고객에게는 삼성전자의 ‘무빙스타일 M7라이트’가사온품으로 제공된다. 손바닥 크기보다 작은 무



SK브로드밴드가 B tv와 이동식 TV를 하나로 결합한 ‘B tv 무빙’을 출시한다. /SK브로드밴드

선 셋톱박스 전원을 무빙스타일 후면에 직접 연결해 하나의 제품처럼 B tv를 무선으로 즐길 수 있다.

B tv 무빙 셋톱박스 스마트 3미니에는 B tv 콘텐츠를 대화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에이닷이 탑재됐다. /김현정 기자 hjk1@

KT, 협력사 상생협력 강화방안 논의

‘KT 파트너스 협의회’ 제 4차 총회 AICT 중심 전략 맞춰 운영체계 개편

KT는 16일 서울 강남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KT 파트너스 협의회’ 제4차 총회를 열고, 협력사와의 상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KT파트너스협의회는 2013년 제정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에 근거해 KT의 수탁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구

성한 단체로, 기술·정보 교류 및 공동 개발 등을 통해 대등한 거래 관계와 동반 성장을 추구한다. 이날 총회에는 약 40개 회원사와 250여 협력사 대표, KT 임직원이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KT의 AICT(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중심 전략에 맞춰 협의회 운영 체계를 개편하고, 운영 분과를 확대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이 의결됐다. 또한 신규 회원사 유치를 위한 기반도 마련됐다.

KT와 협의회는 이날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사와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공동으로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한 ‘공동투자형 기술개발사업’ 협약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협력사의 기술 개발과 제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KT는 앞으로 협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술·인력 등 실질적인 분야에서 협력사와의 공동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모험자본 유입 정책 긍정적… 코리아 프리미엄 ‘골든타임’”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간담회

“새정부 마켓프렌들리 정책 기조 코스피 5000 시대 기대감 커져”

IMA요건 구체화·대체거래소 출범 거래 활성화 등 취임 2년반 성과

“코스피 5000 시대는 단순한 지수 상승이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의 질적 도약을 의미한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16일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새 정부의 마켓프렌들리한 정책 기조 덕분에 코스피 5000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며 “지금이야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중대한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서 회장은 새 정부가 부동산 중심의 자산 축적 구조에서 벗어나 모험자본을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도록 정책 방향을 제시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코스피 5000은 국민적 담론을 통해 사회 구조적 틀을 바꿔야만 달성할 수 있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협회가 이런 담론을 만들어가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해온 만큼 앞으로도 그 역할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취임 2년 반을 맞은 서 회장은 그동안의 성과로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지정요건 구체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단기금융업 신규인가 시 완화된 요건의 유예 적용,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논의 분위기 조성,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도입을 통한 자본시장 자금 이동 기반

마련, 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 출범과 거래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 안정적 자산형성을 위해 디딤펀드를 출시해 평균 6.7% 수익률과 약 2000억원의 수탁고를 달성했으며, 성과연동형 공모펀드 제도화를 통해 한국형 가치투자펀드, 얼리버드펀드 같은 신상품 출시도 이끌었다. 퇴직연금의 실적배당상품 편입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을 도입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점도 언급했다.

부동산PF 시장의 자금경색 위기 대응을 위해 3조3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증권사 보증 PF-ABCP 매입 프로그램(1조8000억원)을 가동해 유동성을 공급했으며, NCR 규제 완화를 통해 증권사 부담을 덜어준 노력도 이어졌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둘러싼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선결과제 해결과 보완시행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점도 강조했다.

앞으로 ISA 비과세와 납입한도 확대, ‘우리아이자립펀드’ 입법 지원,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공모펀드 직상장, 종합금융투자사업자(IMA·발행어음) 신규업무 진출 지원, 법인자금결제 허용,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자본시장 밸류업 등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서 회장은 제도 변화가 업계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분리돼 출범하면 업계가 혁신적인 사업을 주저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배

당소득세 분리과세 논쟁과 관련해서는 세수 감소나 부자 감세라는 시각만 볼 게 아니라, 기업이 배당을 확대하면 주가가 오르고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성과도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령층의 생활소득이 늘어나 소비가 확대되면 기업 이익과 법인세·부가가치세 세수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또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전국민 주식투자 시대를 만들어야 하지만 과거처럼 변동성이 큰 테마나 전략 상품을 무분별하게 권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투자자의 위험 선호도에 맞춘 안정적 상품과 분산투자를 통해 국민이 자본시장에 기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차기 협회장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시기상 지금 이야기할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으며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는 만큼 당장은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 선거는 변수도 많은 만큼 9~10월쯤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금감원 쪼개기, 금융사고 기민 대응 어려워 역효과”

금감원 “소비자 보호 약화” 우려
작년 수조원 손실 ‘홍콩 ELS’ 사례
‘통합조직 체계’의 중요성 보여줘

‘금융감독원 쪼개기’를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두고 내부 조직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금융사고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져 소비자 보호 기능이 약화할 것이란 걱정이다.

17일 금감원 한국장급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는 감독과 검사, 인허가 부서 간 유기적 협업 위에서만 작동한다”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명분으로 기능을 잘라내면, 오히려 기민한 대응은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해 수조 원대 손실을 낳은 홍콩 ELS 사태는 금감원의 통합 조

직 체계가 위기 대응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줬다. 당시엔 분쟁조정 인력뿐 아니라 검사국 인력 등 전사적으로 90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돼, 96%에 달하는 자율 배상 동의를 이끌어냈다. 내부에서는 “조직이 분리되면 이런 유기적인 협업이 불가능해지고, 사후 대응의 실효성도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한다.

특히 금감원 내부 실무진은 금소원이 독립 조직으로 분리될 경우, 현장 대응력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 금감원은 순환근무제를 통해 분쟁조정, 검사, 제재 등 다양한 부서를 경험하게 하며 업무 연계성과 금융 이해도를 높여왔다. 이 과정에서 복합 민원이나 디지털 기반 금융상품 관

련 분쟁에도 부서 간 유기적 협업이 가능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조직이 쪼개지면 정보 교류가 단절되거나 협업 체계가 지연돼 실질적 소비자 보호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의 젊은 조사역들 사이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10년차 이하 조사역인 A씨는 “조직이 쪼개지면 사실상 ‘영원히 비선호 조직 고령’이라는 의미”라며 “검사도 못하고 전문성도 쌓을 수 없다면 조직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이번엔 민원 조직 갔으니 다음엔 다른 부서 배치해줄게’라는 식의 조율이 가능했지만, 조직이 나뉘면 애초에 그런 기회도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

또 다른 저연차 조사역 B씨는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격들을 가진 직원들이 민원부서에 배치되게 되면 이직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금감원 인재 유출과 직결된다”며 책상 앞이 아니라 실무 중심의 실효성을 따져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과 함께 금감위 신설, 금감원·금소원 편제안, 금감위원장 인사 등을 일괄 발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개편의 목적이 실질적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것이라면, 조직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보 공유, 검사 기능 연계, 내부 인사 연동 방안까지 포함된 ‘기능 중심 설계’가 함께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지난 16일 한국투자증권 본사를 방문한 유니온 방카르 프리베(UBP) 주요 임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 스위스 운용사 UBP 자산관리 분야 맞손

한국투자증권이 스위스의 글로벌 자산운용사 유니온 방카르 프리베(UBP)와 자산관리(WM) 분야 전략적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UBP는 지난 16일 니콜라스 팔라 글로벌 자산운용 대표를 비롯해 스텔루트 에드가 아시아 전략대표, 위펑 나 아시아 자산운용 대표, 프란시스 리 아시아 부문장 등 핵심 임원진이 방한해 한국투자증권 본사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과 함께 프라이빗 뱅킹(PB), 패밀리오피스 서비스, 글로벌 대체투자 상품 제공 방안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UBP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사를 둔 프라이빗 뱅크이자 글로벌 자산운용사로, 전 세계 23개국에서 초고액자산가(UHNW) 및 패밀리오피스를 대상으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체투자 상품 운용과 공급에도 강점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협업을 계기로 PB 인력 및 패밀리오피스 관련 교류를 강화하고, UBP의 글로벌 서비스 노하우를 접목해 자산관리 역량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고액자산가의 투자 수요에 맞춘 글로벌 대체투자 상품을 적시에 제공하며 PB 서비스 수준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허정윤 기자

반도체株 상승세… ETF 수익도 ‘고공행진’

TSMC 등 글로벌 파운드리 업황 개선 국내선 SK하이닉스 주가 급등 영향

반도체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반도체 관련주의 주가가 상승세 덕분이다. 대만 TSMC 등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의 업황 개선, 반도체 수급 정상화 기대감과 함께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4조달러 돌파, HBM(고대역폭 메모리) 수요 확대 기대감 등 호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반도체TOP10레버리지’ ETF(47%), ‘TIGER 200IT레버리지’ ETF(45%), ‘KODEX 반도체

레버리지’ ETF(42%) 등 반도체 관련 ETF들이 지난달 1일부터 이날까지 40~50%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대형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ACE 글로벌반도체TOP4 Plus SOLACTIVE’ ETF도 22%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내 반도체 ETF 강세는 SK하이닉스 주가 급등이 직접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이들 ETF에서 SK하이닉스 비중은 20% 안팎으로, 자본시장법상 개별 종목 편입 한도가 30%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SK하이닉스 주가는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1일부터 이날까지 SK하이닉스 주가는 32% 상승했고, 삼성전자는 19% 올랐다. SK하이닉스는 지난 11일 장중 최고가인 30만6500원을 기록하며



ChatGPT에 의해 생성된 반도체 ETF 이미지.

‘30만 닥스’를 달성하기도 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18%)도 올랐지만 반도체 기업의 주가 상승률은 대부분 이를 뛰어넘었다.

지난 15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H20’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나증권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35만원으로 상

향 조정하면서 “최근 엔비디아의 AI반도체 관련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어 HBM 반도체 관련 수요도 기존처럼 양호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도 하반기 주가 회복이 기대된다. 김운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7만5000원으로 유지하며 “2분기를 저점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HBM 상황은 현재보다 더 악화하지는 않을 것이고 컨벤셔널 D램 가격 반등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도체 업황이 상승 반전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세계반도체무역통계(WSTS)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 메모리 반도체 시장 매출 규모가 전년 대비 76.8% 성장한 1632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 전망했다. /원관희 기자

가맹분야 갑질 등 불공정관행 점검 공정위, ‘필수품목 이행 실태’ 파악

1.2만개 가맹점 대상 서면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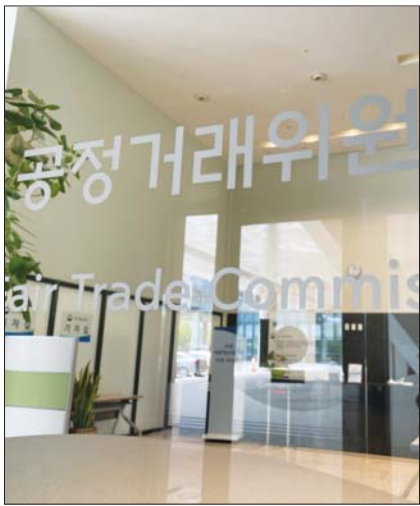
종류·공급가격 기재 의무화 점검
가맹사업법 개정안 협의 규정 검토
10월까지 조사… 12월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도 가맹사업 실태조사에 나선다. 특히 지난해 개선된 필수품목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본다.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및 협의 실태 등 제도 개선 논의와 맞물린 현안들도 이번 조사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외식·서비스·도소매 등 21개 업종에 걸친 200개 가맹본부와 1만 2000여 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가맹사업거래 누리집, 모바일, 이메일, 면접 방식 등을 통해 진행되며, 불공정거래 관행 실태와 제도 인지도, 필수품목·가맹금 현황, 정책 만족도 등을 다각도로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2024년 도입된 필수품목 제도 개선안의 이행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현행 제도는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 기재 의무화하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고,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바꿀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지 등 현장의 체감도와 구체적인 거래 관행을 정밀하게 파악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실태조사는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및 협의 실태도 주요 조사 항목에 포함됐다. 가맹본부가 단체 협의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조사 결과는 입법 논의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된다.

공정위는 “단체 구성률과 가맹본부의 협의 응답 여부 등을 파악해 실질적인 단체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제도와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최근 발표한 ‘2024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가맹본부 수는 전년 대비 0.5% 증가한 8802개, 가맹점 수는 3.4% 증가한 36만5014개로 집계됐다. 하지만 브랜드 수는 1년 새 52개가 줄어 1만2377개로 소폭 감소했다.

공정위는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 소지는 여전하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운영 실태와 거래 관행 전반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가맹사업법 제32조의2에 따라 공표 의무가 있으며, 올해 12월 중 발표되며, 직권조사 착수 여부, 제도 보완, 향후 정책 방향 설정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공정위는 “실태조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특히, 응답자의 신원은 절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만큼 실태조사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집중호우 대비 농업인 안전 관리 강화

농진청, 재해대책 본격 대응

농촌진흥청은 이번 주말까지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의 침수 및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특히, 각 농가에 작물별 생육관리 기술 등의 전파에 나섰다.

농진청은 지난 15일 농촌지원국의 권철희 국장 주재로 호우 대비 점검 영상 회의를 가졌다. 전국 도 농업기술원, 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 관계관이 참석해 지역별 사전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권 국장은 이번 호우로 농업인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야별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농진청은 17일 오전 4시를 기해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비상근무 수준이 2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공조하며 현장동향 파악 및 기술지원 등을 강화하고 있다.

또 ‘농업 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에 가입된 농업인과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농업경영체에 농장 단위(30×30m) 기상재해 정보와 대응 지침을 휴



호우경보가 발효된 17일 오후 광주 서구 서창교 인근 논이 침수돼 있다. /뉴스시스

대전화 문자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비가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집중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각 농가에 비가 그친 뒤 침수 피해 경감을 위한 사후 조치와 병해충 방제 준비 등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벼의 경우, 침·관수 피해가 발생한 논은 벼잎 끝부분이라도 물 위로 나올 수 있도록 신속히 물빼기 작업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또 벼 줄기나 잎에 묻은 흙 양금은 고압 분무기로 제거하고, 도열병·흰잎마름병·멸구류 등 병해충 확산 우려가 있다며 예방관찰을 실시하고 증상이 나타날 시 즉각 방제할 것을 당부했다.

과수의 경우, 침수된 과수원에 물길을 만들어 물 빠짐을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과주 양돈농장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중수분, 오늘까지 이동중지 명령

올해 국내 사육돼지에서 4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사례가 보고됐다. 지난 2019년 처음 발생한 이후 양돈농가 내 돼지열병 발생은 총 53건으로 늘었다.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경기과주 소재의 한 양돈농장(2500여 마리 사육)에서 폐사 등에 따른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돼지열병 양성으로 확인됐다.

중수분은 돼지열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 가축, 차량 등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해 과주시 소재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소독 중이다.

중수분은 16일 오후 8시부터 18일 오후 8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과주시 및 인접 4개 시·군(경기연천, 양주, 김포, 고양)의 양돈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중수분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지시했다.

또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야생멧돼지 출몰지역 입산 및 영농활동 자제, 축사 출입 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4200명 투입해 피서지 무질서 행위 단속

국립공원공단, 계곡 등 순찰 강화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오는 31일까지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지정된 장소 외 야영·주차·취사·흡연 ▲갯길 등 금지구역 출입 ▲오물이나 폐기물 무단 투기 ▲산 정상 등에서 음주 등이다.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여름철 성수기(7~8월) 국립공원 단속 건수는 총 2405건이었다. 불법주차 사례가 7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갯길 등

금지된 장소 출입(661건), 불법취사(376건), 오물투기(196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공단은 불법·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단속에 42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특히 한시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계곡 내에도 관리인력을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여름철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 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전기안전공사, 지역인재·기술 동반성장 박차

전북대와 ‘글로벌대학30’ 맞손
연구인력 상호 교류·학술회의 협력
정부 교육정책 지원·지역소멸 대응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지역 대학과 손잡고 전기안전 기술혁신과 인재양성에 나선다. 전기안전공사는 지난 16일 전북대학교와 ‘글로벌대학30’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기반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의 지역소멸 대응 교육정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는 ▲공동연구사업 수행 ▲연구인력 상호 교류 ▲연구용 기자재 공동 활용 ▲세미나·심포지엄 등 학술회의 공동 개최 등이 포함됐다.

특히 실효성 있는 협업을 위해 양 기관 위원으로 구성된 공동협의체 설치



남화영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왼쪽 5번째)이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왼쪽 6번째) 등 관계자들과 지난 16일 ‘글로벌대학30’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전기안전공사

도 추진된다. 양측은 협약 이행을 위한 정기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남화영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은 학생들에게는 현장 체험의 기회를, 교수진에게는 실증 연구의 장을,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혜택의 순환구조를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전기안전 기술의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정부 교육 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인재 양성에도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폭염 속 온열질환 예방, 안전관리 최우선”

중부발전, ‘전사 안전동행 소통회의’

한국중부발전이 지난 15일 ‘2025년 전사 안전동행 소통회의’를 개최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 및 협력사와의 소통 확대에 나섰다.

이날 회의는 이영조 사장이 직접 주재한 가운데, 본사와 사업소의 안전관리 실무자뿐 아니라 발전소 경상장비를

수행하는 주요 협력기업인 ▲한전KPS ▲한전산업개발 ▲유틸리티에너지서비스 ▲원프랜트 ▲수산인더스트리 ▲한진 ▲상공에너지 등 7개사 실무진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사업장별 안전보건 우수사례 공유 △여름철 폭염 대응 ‘안전 오아시스’ 제도 안내 △협력사에 로사향 및 개선 의견 수렴 △안전 활동 우수 부서 포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상반기 재해예방 활동 우수 협력기업들을 격려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위원의 평가를 거쳐 수산인더스트리 보령사업소(최우수상)와 한전산업개발 보령사업소(우수상)에 대한 특별 포상을 시행했다.

이영조 사장은 회의에서 “최근 폭염으로 인한 현장 작업 여건이 매우 취약하므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휴게시설 운영을 대폭 강화하고 근로자 건강 관리에 적극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헛터그룹에서는 누구나 성실하면, 억대 연봉을 이룰 수 있습니다.

헛터그룹의 성장을 주도하실 프리랜서 영업지부장님을 모십니다.

헛터그룹 소개

풍요롭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30년 전통의 "헛터그룹"은 아래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대한홍삼(주) _ 건강백화점 사업부문**

1000여개의 인기 있고, 가성비 좋은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홍삼&건강상품을 한자리에 모아, 고객이 직접 체험하고,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결합매장 사업을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주)헛터 _ 수출 사업부문**

홍삼&건강상품을 아시아, 미주, 유럽, 중동, 아프리카, CIS의 36여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 **(주)헛터방송 _ 브레인TV 사업부문**

3,600만여 가구의 가시청가구를 확보하고, 350여개의 TV채널과 경쟁하여, 당당히 50위를 지속적으로 지키고 있는 장기, 체스, 보드게임 전문 TV방송채널으로서, 강력한 마케팅도구로서 최고의 가성비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 **(주)헛터라이프 _ 이커머스 사업부문**

7만여종의 취급상품을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하여, 자체적으로 종합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20여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250여개 파트너사에 복지쇼핑몰의 구축과 IT개발관리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한삼장홍삼(주) _ 한삼인 유통 사업부문**

농협홍삼 한삼인의 발효홍삼제품의 국내와 해외 유통의 독점 판매원으로서, 2009년부터 한삼인 발효홍삼제품의 국내외 유통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요강

모집부문	주요업무	자격요건	인원
영업지부장 (위촉직/프리랜서)	"헛터그룹에서 할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소개만 시켜주십시오. 사업설명과 계약은 본사가 책임집니다." ◎ 건강상품의 창업후보자 발굴 ◎ 복지쇼핑몰 개설 후보자 발굴 ◎ TV 광고스폰서 발굴 ◎ 건강 상품 판매, 도소매업자 발굴 등	당신의 열정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 경력, 학력 무관	00명

급여조건

100% 성과급 (개척수당+매출액 비례 성과급)

전형절차

서류접수 → 면접 → 활동시작

연락처 : 010-9954-1067/02-2163-0049

서울시 하반기 정책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 가동… 현장 중심 종합지원

‘서울배달+땡겨요’ 활성화 추진
50억 규모 성장펀드 신규 조성
‘소상공인 종합병원’ 모델 구축

지속되는 내수 부진, 미국발 관세 인상 등 복합적인 경제 압력에 지난해 전국 폐업 신고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건을 넘어서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서울시가 157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장사하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에 나선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 하반기 지원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번 하반기 정책은 금융지원에 더해 경영, 투자, 사회안전망까지 아우르는 현장 체감형 종합 대책을 추진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돌파구를 찾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하반기 주요 추진 정책은 ▲공공배달 서비스 ‘서울배달+땡겨요’ 활성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3종 지원 ▲성장형 소상공인 투자 펀드 신설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 및 금



서울시청

/메트로신문 DB

리인하 ▲서울신용보증재단 조직개편이다.

우선,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낮춘 서울시 공공배달서비스 ‘서울배달+땡겨요’ 활성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치킨 프랜차이즈가 협약을 맺고 7월부터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서울배달+가격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비용은 서울시·신한은행·프랜차이즈 본사가 공동 분담하며, 피자·햄버거 등 타 업종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배달+땡겨요’ 자체 배달서비

스 ‘땡배달’도 이달 30일부터 서울 중구에 시범 도입한다. 배달앱 운영사가 ‘소비자-가맹점-배달’을 통합 관리해 라이더 신속 매칭부터 배달 동선 실시간 제공, 음식 전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 배달비를 무료 또는 900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식이다.

다음 달부터는 1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 가능한 ‘땡겨요 배달전용 상품권’도 3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 쿠폰(2만원 이상 3회 주문 시 1만

원 지급)까지 더하면 혜택은 더욱 커진다.

영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도 최소화한다. 퇴직금 ‘노란우산 공제’와 실업급여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에 이어 지난 6월부터는 ‘자영업자 산재보험’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이른바 자영업자 ‘안심 3종’의 완성이다.

시는 자영업자의 퇴직, 실업, 재해에 이르는 3대 사회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소상공인 생계 안정과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생계 위주 지원을 넘어 성장 가능성 높은 유망 소상공인에 투자하는 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더성장펀드’도 신규로 조성한다. 시 출자금을 기반으로 민간 펀드운영사가 투자·운용을 맡을 예정이다.

중소기업육성자금 규모를 기존 2조 1000억원에서 2조 4200억원으로 3200억원 확대한다. 여기에 금리인하와 상환유예조치도 병행해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에 나선다.

추가자금 3200억 원은 ▲미국발 관세 조치 대응을 위한 ‘수출기업 경영

안정자금’(1000억원) ▲서울배달+땡겨요 입점 가맹점주 대상 저리용자 지원 ‘서울배달상생자금’(200억원)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불법대부업 시장에 내몰리지 않도록 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 소액·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안심통장 2호’(2000억원)에 투입된다.

마지막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전 지점을 ‘종합지원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보증 등 금융지원 중심에서 소상공인이 겪는 복합적인 경영 애로인 세무·노무·마케팅·디지털 전환 등 전반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종합병원’ 모델로 탈바꿈한다.

즉 금융과 경영지원 상담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종합상담창구’를 신규 개설, 1회 방문만으로 보증은 물론 창업·재창업, 세무·노무, 관로개척, 디지털 전환 등 생애주기별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장은 “서울경제 뿌리인 소상공인이 위기를 차질없이 극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반기에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데이터 기반 시민 삶 예측… 정책 실효성 높인다

교통·주거 등 핵심 시정 분석
‘데이터 행정 시대’ 전환 추진

서울시가 정책 수립 초기 단계부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책 효과를 예측하는 행정 모델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도시공간 ▲교통 ▲주거·복지 ▲경제·상권 ▲문화·관광 등 5대 분야 핵심 시정 사업을 분석해 기존의 일방적 정책 설계에서 벗어나 생활 밀착형 맞춤형 정책을 예측·검증하며 추진하는 ‘데이터 행정 시대’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공 인프라 입지 선정, 교통 소외 해소, 주택 수급 안정, 시장 활성화, 관광객 유입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에 데이터를 적용해 보다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정책 설계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시는 걷는 도시, 정원 도시를 설계한다. 시는 ‘도보 30분 내 모든 생활이 가능한 도시’를 목표로 지역별 인구특성과 보행 인프라 접근성을 분석 후, 연령대별 보행속도까지 반영해 필수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정밀 진단한다.

도보 5분 내 녹지를 누릴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공원 이용 행태와 공간 분포를 분석하고, 지역별 우선 공급 대상을 도출한다. 또한 3D 공간정보(건물 높이, 지형 등)를 기반으로 방법 사각지대를 분석해 CCTV·조명 등 방법 인프라 설치 위치를 선정한다.

시는 데이터를 이용해 경전철 도입 효과도 예측한다. 기존 경전철 노선(신림선, 우이신설선 등)의 개통 전후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활편의·환경성·일자리 효과 등 다양한 항목을 수치화해 신규 노선 타당성 평가에 적용함으로써

써 교통 소외지역 해소에 나선다.

정비사업, 저출생 해법에도 분석을 이용해 주택 수급 안정을 꾀한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택 공급 공백과 멸실 시기를 예측해 전세 불안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주거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또한 인구·인프라·소비 데이터를 결합해 양육 친화적인 지역 특성을 분석하고, 저출생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더불어 신용카드 결제, 방문객 유입 데이터로 전통시장 이벤트의 실질적 매출 효과를 검증하고, 지역 맞춤형 상권 활성화 전략을 마련한다.

이와함께 외국인 카드 소비, 체류 흐름을 분석해 ‘누가, 어디서, 무엇을 소비했는지’ 파악하고, 고부가관광객(MICE, 의료 등)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한다.

국제정원박람회, 야외도서관 등 문화 행사의 유동 인구 변화, 이용자 특성 등을 분석해 방문객 유형별 콘텐츠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 뿐만 아니라 국내 관광객 유치에도 활용한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서울은 데이터를 통해 시민 삶을 예측하고 설계하는 도시로 진화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높은 정책 결정을 위해 데이터 행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서울교육청, 협력종합예술활동 뮤지컬·연극 발표회

예술교육 성과 공유 무대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제2서울창의 예술교육센터에서 ‘2025 협력종합예술활동 뮤지컬·연극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중학생들이 기획부터 무대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한 창작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로, 학생·교사·예술강사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협력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예술교육의 성과를 공유하는 무대다.

협력종합예술활동은 2017년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예술교육 프로젝트로, 현재는 서울 모든 중학교에서 운영 중이다. 학급 단위로 모든 학



2025 협력종합예술활동 뮤지컬·연극 발표회 포스터 /서울시교육청

생이 참여하며, 수업과 연계해 이야기 구성, 연기, 연출, 무대 디자인, 음악 등

전 과정을 함께 만들어 간다.

학교에는 예술강사가 파견돼 담당 교사와 협력해 수업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예술적 표현뿐 아니라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역량을 키운다. 학기 말에는 학교별 발표회를 통해 학생들의 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코로나19 기간에도 온라인 발표회로 활동을 지속한 바 있다.

올해 발표회에는 6개 중학교가 참여해, 가족·성장·공동체·청소년 내면 등을 주제로 한 뮤지컬과 연극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작품은 학생들이 직접 구성하고 연기한 창작 공연으로, 학교별 개성과 메시지가 잘 드러나는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진 기자

경기문화재단, 경기옛길 환경정화 행사

1회차 26일, 2회차 내달 9일

경기문화재단 경기역사문화유산원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환경정화 행사 ‘경기옛길 더하기, 환경 투개더’를 오는 26일과 8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한다.

이 행사는 역사문화탐방로인 경기옛길을 반려문화와 기후행동 실천의 장으로 확장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길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 중심으로 진행된다.

1회차 행사는 26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2회차는 8월 9일 같은 시간에 열린다.

행사 장소는 영남길 제3길 구성현길

(탄천)와 삼남길 제8길 오산생태하천길(맑음터공원)이다.

1회차 행사는 집결지인 구성역 1번 출구에서 시작해 참가자 등록과 반려견 매너장비 확인, 반려견 매너 교육과 리플릿 배포, 플라로이드 사진 촬영이 이어진다. 이후 약 2.8km의 탐방로를 걸으며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한다.

2회차 행사도 동일한 구성으로 운영되며, 참가자에게는 배변봉투, 간식, 소정의 기념품 등 물품이 제공된다.

재단은 행사 진행 전 과정에 안전요원과 운영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운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시도 않는 것 실패와 같아… CEO, 경영환경 변화 예측해야”

롯데지주, 2025 하반기 VCM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문제가 있는 것 알면서도 외면
기업 경영에 치명적인 잘못”
그룹사별 본원 경쟁력 회복 주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25 하반기 사장단 회의(VCM)’에서 그룹사별 본원 경쟁력을 회복할 것을 주문했다.

17일 롯데지주에 따르면, 신 회장은 1박 2일로 진행된 ‘2025 하반기 VCM’에서 각 그룹사에게 ▲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군별 전략 추진 가속화 ▲생산성 향상 등을 제시하며, 핵심 사업 중심으로 본원 경쟁력을 회복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VCM은 시종일관 엄중하고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지주는 신 회장은 상반기 그룹



지난 16일부터 17일 롯데인재개발원 오산캠퍼스에서 진행된 VCM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연설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롯데지주

실적을 냉정하게 평가한 후, 주요 경영 지표 개선을 위한 선결 과제로 본원 경쟁력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본원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래 예측에 기반한 전략 수립과 신속

한 실행 역량을 갖춰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기업 경영에 있어서 치명적인 잘못은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외면하거나, 문제를 문제라고 인지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최고경영책임자(C

EO)는 5년, 10년 뒤의 경영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현재와 3년 뒤에 해야 할 일을 계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인재와 기술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사업군 별로 현재 추진 중인 전략부터 속도감 있게 실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표적으로 화학군은 신속한 사업 체질개선을, 식품군은 핵심 제품의 브랜드 강화를 강조했다. 유통군은 다양한 고객 니즈를 충족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성과 중심의 인사체계가 정착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외에도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경영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우리에게 리스크와 기회를 동

시에 제공한다”며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실패와 같다. 그룹의 미래를 위해 모두 저와 함께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하반기 VCM에서는 롯데 미래전략연구소는 지속성장을 위한 혁신 방안을, 롯데벤처스는 스타트업과 협업을 통한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각 계열사 별 CEO들은 ‘그룹의 중장기 성장 방안’을 주제로 회의를 진행했다.

실제 롯데그룹은 현재 도전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다. 최근 롯데케미칼은 지속적인 실적 부진으로 신원사들에 의해 신용등급이 하락했으며, 롯데지주 역시 관련 여파로 신용등급이 동시 하락했다. 이 외에도 온라인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오프라인 유통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외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쇄빙선 북극 탐사… 신세계百貨, 여행업 진출

내달 5일 ‘비아 신세계’ 오픈

마스터피스·오리진 2개 등급
네 가지 테마 구성 상품 선보여

신세계백화점이 업계 최초 여행업에 진출하면서, 사업 확장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오프라인 사업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자, 비유통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혀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7일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내달 5일 여행 플랫폼 ‘비아 신세계’를 공식 오픈한다. ‘배움과 철학을 얻는 차별화된 경험의 여정’을 콘셉트로, ‘마스터피스’와 ‘오리진’ 두 가지 등급과 네 가지 테마로 구성된 상품을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마스터피스 등급은 고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2025년 모터스포츠 마지막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여행 상품을 구성했다. 또 탐험가 제임스 후퍼와 함께 쇄빙선을 타고 북극을 탐사



신세계백화점이 새롭게 선보이는 여행 플랫폼 ‘비아 신세계’ 관련 포스터 이미지. /신세계百貨

할 수 있는 여행 상품을 비롯해 정원 디자인인 황지해 작가와 영국 정원을 함께 여행하는 콘텐츠 등을 준비했다.

오리진 등급은 테마가 있는 여행 상품으로 마련됐다. 정회원 전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와 함께 뉴질랜드 및 그리스로 떠나는 여행이 대표적이다. ‘노년 건강’을 주제로 뉴질랜드와 그리스의 웰빙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것이 특징이다. 국가유산청과 함께 자연유산 및 명승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유산을 만나보는 국내 여행 상품도 준비됐다.

비아 신세계의 특이점은 여행 전후를

모두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여행 전에는 ‘프리뷰 아카데미’를 통해 사전 강의를 운영하고, 자택에서 공항까지 고급 세단으로 이동할 수 있는 픽업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행 후에는 레스토랑 미식 체험, 전시회 관람 등 문화 활동까지 지원하면서, 여행 전후를 포괄하는 종합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하나카드는 이달 17일 신세계백화점의 여행업 진출 시기에 맞춰 ‘신세계 트레블 GO 하나카드’ 신용카드를 출시한다. 하나카드에서 처음 트래블 서비스를 탑재한 신용카드로, 해외 이용 시 하나머니를 적립할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이 유통을 넘어 비유통 분야까지 사업을 확장하는 배경으로, 유통업계 오프라인 경쟁력이 성장 한계에 직면한 현 상황이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프라인 유통 사업만으로는 기업이 경쟁력을 갖기가 힘든 게 사실”이라며 “지속 가능한 수입 창출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LF몰, 70여개 주요 수입브랜드 한눈에

‘공식수입’ 탭 오픈

생활문화기업 LF가 운영하는 전문몰 ‘LF몰’이 공식 수입 브랜드를 한데 모은 ‘공식수입’ 탭을 새롭게 오픈했다고 17일 밝혔다.

LF는 이번에 신설한 공식수입 탭을 통해, 자사가 직접 수입하거나 국내 유통 라이선스를 보유한 70여 개의 주요 브랜드를 한 번에 선보인다. 특히, 패션·뷰티

·리빙 등의 수입 브랜드가 포함됐다. 대표브랜드로는 ▲바버 ▲이자벨마랑 ▲포르테포르테 ▲바네사브루노 ▲티몬브로스 등이 있다. 계절별 유행 및 신규 상품 소개, 스타일링 제안 등 LF몰 상품기획자(MD)가 기획한 콘텐츠도 마련했다. 이 외에도 LF몰은 공식수입 탭 신설을 기념해 응모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달 28일까지 추첨을 통해 수입 브랜드의 여름 제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안재선 기자

이마트, 농식품부와 3주간 ‘농할’ 행사

이마트가 약 3주간 농식품부와 협력해 농축산물 할인 지원 행사인 ‘농할’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마트는 이번 농할 행사를 통해 여름 제철 농산물과 최근 시세가 오른 농산물을 할인가에 선보인다. 특히, 농산물 구매 시 신세계포인트를 적립하면 이마트 자체 20% 할인에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20%가 추가로 적용돼, 최대 36%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가장 먼저, 1주 차 행사로 이달 24일까지 복숭아·거봉포도·토마토·무·배추·오이·양파·부추 8품목을 제공한다. 대



이마트 매장 내 농수산물품 매대 모습. /이마트

표 품목으로는 여름 제철 과일인 ‘부드러운 복숭아’, ‘달콤한 황도복숭아’, ‘아삭한 복숭아’ 등 복숭아 3종을 비롯해 ‘거봉 포도’, ‘대추방울토마토’ 등이 마련됐다.

/안재선 기자

대상, 美서 ‘고기능성 식품소재 기술’ 주목

식품기술 전시회 ‘IFT 2025’ 참가

대상㈜은 14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식품기술 전시회 ‘IFT 2025’에 참가해 고기능성 식품소재 기술력을 선보이며 글로벌 바이어들로부터 주목받았다고 17일 밝혔다.

‘IFT 전시회’는 전 세계 90여 개국, 120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국제 식품기술 행사다. 대상㈜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가해 감칠맛, 저염 솔루션 등 차별화된 제품을 샘플 시연과 함께 선보였다.

이번 전시회에서 대상은 대체당 브랜드 ‘스위베로’의 알룰로스를 소개했다. 알룰로스는 설탕과 유사한 단맛을 내지만 칼로리가 거의 없어 건강한 생활을

지향하는 소비자에게 주목받고 있으며, 대상은 군산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미국, 유럽, 일본 등으로 수출을 확대 중이다.

천연 조미 소재 브랜드 ‘나미노’는 감칠맛을 강조하면서도 나트륨을 최대 30% 줄일 수 있는 클린라벨 제품으로, 비건 트렌드에 적합하다. 또 다른 소개 제품인 ‘에멜에이드’는 식물성 기반 유화안정제로, 비건·알러젠 프리 제품 개발에 적합하고 다양한 식품에 적용 가능하다.

대상㈜ 관계자는 “현지에서 높은 호응을 얻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소재 개발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풀무원식품 국산콩물 50만병 판매

풀무원식품은 특등급 국산콩만을 사용해 콩 본연의 깊은 맛을 극대화한 여름 시즌 신제품 ‘특등급 국산콩물’이 출시한 달여 만에 누적 판매량 50만 병을 돌파하는 등 여름철 흥행에 성공했다고 17일 밝혔다.

‘특등급 국산콩물’은 풀무원의 바른 먹거리 원칙에 따라 콩의 크기, 이물질 유무, 균일감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선별한 특등급 국산콩으로 만든 제품이다.

콩즙과 천일염만으로 콩 본연의 고소하고 담백한 풍미를 극대화하면서 감칠맛을 살렸다.

100g당 40kcal로 가볍게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동서식품 ‘카누 공식 스토어’ 오픈

동서식품이 커피 브랜드 카누(KANU) 전용 플랫폼인 ‘카누 공식 스토어’를 오픈했다.

카누 공식 스토어는 기존 카누 웹사이트와 이벤트용 애플리케이션(앱)인 카누 패들 앱을 통합해 재탄생했다. 스틱 커피, 커피 머신, 캡슐커피, 원두 등 카누 전 제품군을 한곳에서 구매할 수 있는 원스톱 쇼핑 기능과 멤버십 프로그램 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카누 공식 스토어에서는 구매 실적에

따라 멤버십 등급별 혜택을 제공하며 ‘카누 포인트’를 적립하고 사용할 수 있다. 카누 포인트는 카누 공식 스토어에서 제품 구매 시 자동 적립되며 포인트로는 카누 공식 스토어 제품 할인, 카누 스페셜 굿즈 교환, 네이버페이 포인트 교환 등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카누 공식 스토어에서만 진행되는 카누 바리스타 머신 페이백 프로그램, 캡슐 정기 구독 등 차별화된 구매 혜택과 캡슐 재활용 신청과 같은 편리한 기능을 갖췄다.

/신원선 기자

내수시장 과포화... K-카페, 성장동력 찾아 속속 해외진출

더벤티 캐나다·베트남 이미 진출
하반기 중 요르단 암만에 첫 매장

설빙 프레드리 그룹 산하법인 계약
연내 필리핀 마닐라에 1호점 예정

국내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들이 포화 상태에 이른 내수 시장을 벗어나 해외 진출에 속속 나서고 있다. 골목마다 커피 전문점이 밀집해 더 이상 출점 여력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뽕다방, 더벤티, 매머드 등 국내 5대 저가 커피 브랜드의 총 매장 수는 올해 들어 1만 개를 돌파했다. 2020년까지만 해도 3000개 미만이었던 매장 수가 불과 5년 사이 세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고물가 속 저가 커피 수요가 늘면서 창업 진입장벽이 낮은 프랜차이즈 중심으로 급격한 외형 성장이 이뤄졌지만, 그만큼 시장은 과포화 상태에 이르



서울 서초구의 한 컴포즈 커피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벤티는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진출한 캐나다와 베트남에 이어 최근 중동 요르단의 유력 기업 'JKT NETWORKS'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2025년 하반기 수도 암만에 첫

매장을 열 계획이다.

더벤티는 한류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요르단에서 현지 맞춤형 메뉴와 운영 전략을 도입해 K-Cafe 브랜드의 정체성을 확산시킬 방침이다.

지난달에는 베트남 호치민에 직영 1호점을 오픈했다. 베트남 MZ세대와 외

국인 거주자가 밀집한 트렌디한 상권에 자리한 호치민 매장은 '울무오트라떼', '퍼플연유라떼' 등 한국적 감성을 담은 메뉴와 로컬 특화 신메뉴를 함께 선보이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더벤티는 국가별 로컬라이징 전략과 SNS 이벤트, 프로모션 등을 통해 현지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는 데 주력한다.

코리안 디저트 카페 설빙도 필리핀 현지 외식 기업 '프레드리 그룹(Fredley Group of Companies)' 산하 법인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필리핀 시장 진출에 나섰다. 필리핀 설빙 1호점은 연내 마닐라 대형 쇼핑몰 'SM 몰 오브 아시아'에 문을 열 예정이다, 2호점도 마닐라 내에 추가 오픈할 계획이다. 설빙은 현재 미국, 일본, 호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에 진출해 있으며, 향후 싱가포르, 대만, 라오스 등 동남아 국가로의 진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이디야커피는 말레이시아에, 메가MGC커피는 몽골에 1호점을

오픈하며 해외 시장에 나섰다. 컴포즈커피는 싱가포르에서 매장 2개를 운영하며 해외 시장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특히 컴포즈커피는 최근 필리핀 최대 외식기업 '졸리비(Jollibee)'에 인수되면서 글로벌 사업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해외 시장 진출이 반드시 안정적인 수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글로벌 커피 시장은 현지 브랜드로 경쟁이 치열하며, 동남아의 경우 로컬 브랜드들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 틈새 시장을 비집고 들어가기 어려울 수 있다"며 "소비자 취향도 다양해 메뉴 현지화가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처럼 아메리카노 비중이 절반 이상 되는 시장은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지만, 해외는 20~30% 수준에 그쳐 원가 부담과 수익성 관리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오가노이드사이언스-원광대, 반려견·축산바이오 연구

산학연 공동연구 설명회 개최
맞춤형 치료제 개발 등 논의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전북 익산 소재 원광대학교와 함께 첨단 오가노이드 기술 개발 협력을 본격화 한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지난 16일 원광대학교가 함께 반려동물 및 축산 바이오 분야에서의 산학연 공동연구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오가노이드 기술을 기반으로 한 대체시험법과 맞춤형 치료제 개발, 재생의료 연구 등 다양한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공동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사측은 이번 설명회는 단순한 연구 협력 제안 수준을 넘어, 학문과 산업의 경계를 허물고 실질적인 공동연구 과제 발굴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고 설명했다. 특히, 반려동물산업 및 축산업과 같은 응용 생명과학 분야에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지난 16일 전북 익산 소재 원광대학교가 함께 반려동물 및 축산 바이오 분야에서의 산학연 공동연구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서 기존의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오가노이드 기술의 적용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위한 산학 협력 기반 마련에 양측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원광대학교는 교육부가 지난 202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생명산업 육성 정책의 일환인 총 2670억원 규모의 '생명산업 중심 글로벌대학30 사업'의 통합 모델로 선정되며 본격적으로 대학 통합과 혁신 모델 구축에 나선 것으로 풀

이된다.

이번 협력을 통해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원광대학교의 연구 인프라 및 학제 간 전문성과 연계해 실질적인 기술 실현과 임상 적용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공동연구 설명회를 계기로 원광대학교와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지속 가능한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오가노이드 기반 바이오 기술의 실용화와 상용화를 위한 협력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공동연구센터 설립, 연구인력 교류, 정기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이번 산학협력 설명회는 전북 지역의 바이오 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그동안 바이오소재, 농생명, 동물의학 등 다양한 바이오 기반 산업에 주력해왔으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고부가가치 바이오 기술의 지역 정착과 기술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유종만 대표는 "이번 협력은 단순한 연구지원 수준을 넘어서, 학계와 산업계가 함께 '대체시험법'이라는 글로벌 바이오 트렌드에 대응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원광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반려동물 질환 모델 개발, 축산용 치료제 및 기능성 소재 연구 등 다양한 영역으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연구책임자 임은경 박사(오른쪽부터), 제1저자 서승범 박사, 이진아 연구원.

공기 중 항생제 내성균
빠르고 정확하게 찾는다
생명연구 'CN-TAR' 개발

국내 연구진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항생제 내성균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새로운 진단 기술을 개발했다. 병원감염 예방과 공중보건 안전망 구축에 게임체인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나노 연구센터 임은경 박사 연구팀은 연세대학교 황정호 교수 연구팀과 함께 공기 중의 항생제 내성균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새로운 진단 기술인 'CN-TAR'을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병원, 공항, 지하철 등 감염 취약지역에서 즉시 진단이 가능한 '현장형 플랫폼 기술'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최근 공기 중으로도 전파가 가능한 슈퍼박테리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MRSA(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와 VRE(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는 폐렴이나 패혈증 등 같은 위험한 질병을 유발하고, 기존 항생제로는 잘 치료되지 않는다.

연구팀은 유전자 가위로 널리 알려진 CRISPR-Cas9 시스템을 진단 목적으로 변형하여 박테리아가 가진 특정 유전자를 정확히 찾아 자르고, 그 절단 산물을 실시간으로 증폭하여 빛으로 표시해주는 'CN-TAR'라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했다. /이세경 기자

GC녹십자, 알리글로 후속 연구결과 발표

혈액응고인자 등 제거 안전성 향상

GC녹십자는 미국 뉴저지에서 개최된 '2025 국제혈전지혈학회(ISTH 2025)'에서 면역글로불린 제제 알리글로 후속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알리글로는 선천성 면역결핍증으로 불리는 일차 면역결핍증에 사용하는 정맥투여용 면역글로불린 10% 제제다. GC녹십자가 독자 기술로 혈전색전증 발생의 주원인이 되는 혈액응고인자 등 불순물을 제거해 안전성을 높

인 것이 특징이다.

이번 연구결과는 면역글로불린 제제 점도와 관련된 것으로, 연구팀은 면역글로불린 제제 농도를 표준화하는 측정법을 적용해 제품 간 점도를 정량적으로 비교했다. 분석 대상에는 알리글로를 포함해 미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옥타겔, 개뮤넥신, 프리비젠, 감마가드 리퀴드 등이 포함됐다.

총 5종 면역글로불린 제제의 점도는 4℃~25℃까지 다양한 온도 조건에서 측정됐고, 모든 제품이 온도가 높아질수록 점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청하 기자

SK바사, 독감백신에 면역증강제 적용

식약처에 'NBP607B' 임상 신청

SK바이오사이언스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규 독감백신 후보물질 'NBP607B' 임상 1/2상 시험계획(IN D)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NBP607B'는 기존 자체 개발 독감백신 스카이셀플루에 면역증강제를 적용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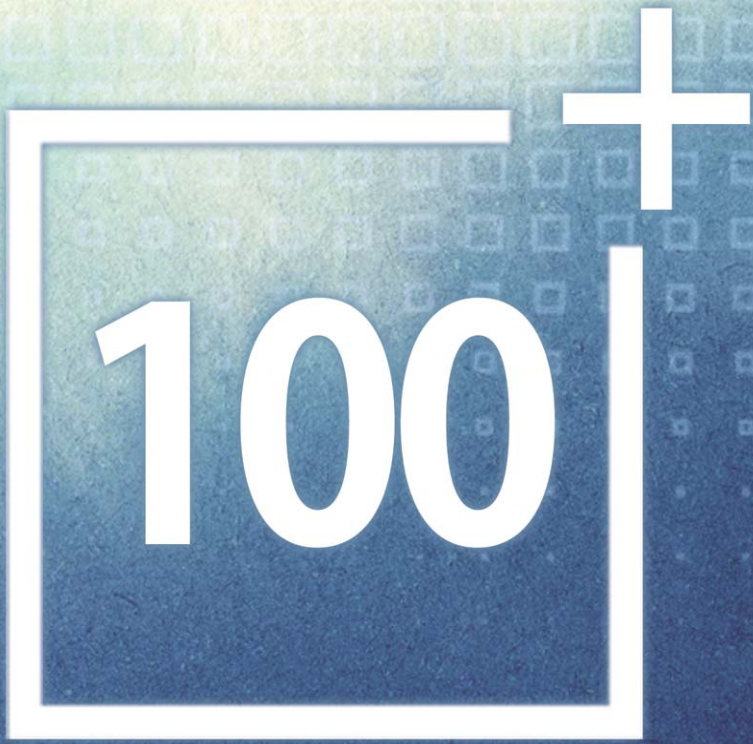
이번 임상 1/2상은 올해 북반구 독감 유행 시즌에 맞춰 국내외 고령자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약 320명에서 'NBP607B' 면역원성과 안전성을 평가

하며, 기하가된 고면역원성 백신을 대상으로 해 비교하는 방식이다. 중간 결과는 오는 2027년 발표된다.

국내 기업이 면역증강제를 활용한 고면역원성 독감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계획을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의 예방 효과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NBP607B에는 스위스 비영리 백신 연구기관 '백신제형연구소(VFI)'의 면역증가제를 도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늦어진 은퇴, 달라진 자산시장,
초고령사회 자산관리 전략

|일시| 7월 22일(화) 오후2시 |장소|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 행사개요

행 사 명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주 제 늦어진 은퇴, 달라진 자산시장, 초고령사회 자산관리 전략
일 시 2025년 7월 22일(화) 14:00~17:00 (VIP 티타임 13:30~14:00)
장 소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주 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등 록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문 의 100세플러스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연사 소개



김학균
-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투자분석부장
-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장



박희운
- 한국투자신탁운용 솔루션본부장(전무)
- KB증권 리서치센터 전문위원
- 삼성자산운용 리서치센터장



정재훈
- 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 수석차장
-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겸임교수



김민승
- 코빗 리서치센터 설립 멤버 및 리서치센터장
- 다수 블록체인 스타트업에서 전략기획 업무 수행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14:15	〈축사〉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15~14:50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 : 달러약세와 지배구조 개선이 가져올 한국증시의 변화
강연	14:50~15:30	박희운 한국투자신탁운용 솔루션본부 전무 : 글로벌 자산배분과 리스크 대응형 포트폴리오
	15:30~16:10	정재훈 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 수석차장 : 내 집은 자산일까, 부채일까? 초고령사회에서의 주거전략과 부동산 시장 전망
	16:10~16:50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 : 트럼프 2기와 스테이블코인: 미국의 디지털자산 전략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야구장 ‘갤럭시 체험존’으로 소비자 점점 확대

삼성 라이온즈 파크 ‘갤럭시 홈런존’
KT 위즈파크, ‘체험·셀피존’ 운영
잠실야구장에 폴드7 포토존 만들어
각 구장서 ‘승요셀피’ 프로그램 등 진행

삼성전자가 폴더블폰 신제품 ‘갤럭시 Z 폴드7·Z 플립7’을 앞세워 국내 프로야구 팬들과 만난다. 삼성 라이온즈, KT 위즈, 두산 베어스 등 3개 구단과 함께 신제품 체험형 마케팅을 진행하며 소비자 점점 확대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정규 시즌 기간 동안 야구장 내 갤럭시 체험존과 이벤트 좌석을 운영하며 폴더블폰의 초슬림 디자인, 고성능 카메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능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는 폴드7이 설치된 전용 루프탑 좌석과 ‘갤럭시



삼성전자는 정규 시즌 기간 동안 야구장 내 갤럭시 체험존을 운영한다. 위 사진은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방문객들이 ‘갤럭시 Z 플립7’으로 삼성 라이온즈의 마스코트 ‘블레오’와 함께 ‘승요 셀피’를 촬영하는 모습. /삼성전자

홈런존’이 마련됐다. 관람객은 폴드7 대화면으로 실시간 중계를 감상하거나, 스마트폰과의 화질 비교 체험, 고화소 카메라 인종상 촬영 등을 경험할 수 있다. 홈런존에서는 경기 중 홈런이

터질 경우 추첨을 통해 폴드7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수원 KT 위즈파크에서는 오는 17~20일, 내달 12~14일 진행되는 물놀이 축제 ‘워터 페스티벌’과 연계한 체험존과

셀피존이 운영된다. 관람객은 플립7으로 셀피를 촬영하고 생성형 편집 기능으로 개성 있게 꾸밀 수 있으며, 갤럭시 워치8 시리즈도 함께 체험할 수 있다. 내달 13일에는 ‘갤럭시 데이’ 특별 응원전도 열린다.

두산 베어스 홈구장인 서울 잠실야구장에서도 오는 23~24일, 내달 26~28일까지 ‘갤럭시 체험존’이 운영된다. 폴드7 디자인을 형상화한 대형 스크린 앞에서 하이라이트 영상을 배경으로 기념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각 구장에서는 구단 마스코트와 함께 플립7의 ‘플렉스캠’으로 셀피를 찍는 ‘승요 셀피’ 프로그램과 QR코드를 활용해 야구 사진을 다운로드·출력할 수 있는 ‘히든 포토 PICK’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HLB글로벌, 의료보조·조리 로봇 개발

HLB글로벌이 지난 16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HLB글로벌 서울사무소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테니스 홍 기계항공공학 교수(왼쪽)와 ‘의료 생활보조 및 조리 로봇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HLB글로벌



이통3사, V컬러링 2차 기부 캠페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8월 10일까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함께 V컬러링 2차 기부 캠페인을 진행한다. 사진은 캠페인에 참여한 서경덕 교수(왼쪽)와 영상 내레이션에 참여한 류승룡 배우. /KT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5 원로위원회 회장 이·취임식’에서 (앞줄 왼쪽 4번째부터)권혁홍 전 원로위원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한영수 신임 원로위원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중기중앙회 한영수 원로회장 취임

‘원로위원회 회장 이·취임식’
한 회장 “책임감 있게 이끌 것”

중소기업중앙회 원로위원회 신임 회장에 한영수 한국합성수지가공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취임했다.

중기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본회에서 ‘2025 원로위원회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9년 5월 출범한 원로위원회는 중기중앙회 공식 자문기구로 전·현직 중소기업 협동조합 원로 이사장들로 구

성했다. 중소기업 조직 운영과 협동조합 애로 사항 해소 등에 관한 자문을 맡고 있다.

이날 행사에선 제2·3기 원로위원회장을 역임한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의 이임과 한 이사장의 제4기 위원회장 선임이 이뤄졌다.

한 회장은 취임사에서 “협동조합계 선배들과 함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책임감 있게 위원회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LG CNS,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역량 기반 인사제도 도입
자율 책임 근무제 시행

AX(인공지능 전환) 전문 기업 LG CNS는 상호 존중과 대화, 협력을 바탕으로 모범적인 노사문화를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5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LG CNS는 1987년 창립 이후 모범적인 노사문화를 통해 38년간 무분규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다. 노사 소통 과정을 거쳐 LG CNS는 근무 기간이 아닌 기술 역량 수준을 보상에 반영하는 역량 기반 인사제도를 도입했다. 안식월 휴가제 도입, 중식비 인상 등 복지 수준도 제고해 나가고 있다.

LG CNS는 근무 방식에도 변화를 줬다. 모든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사무

실에 출근해 근무시간을 채워야 하는 획일적인 제도에서 벗어나 성과 중심의 자율 책임 근무제를 시행 중이다.

아울러 회사는 직원들의 경력 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구성원들이 자신의 커리어 성장을 위해 스스로 본인이 희망하는 조직과 직무를 찾아 지원하는 ‘마이커리어업(사내공모제도-잡포스팅)’ 제도가 활성화돼 있다.

현장의 다양한 직무 전문가들이 채용과 평가 등 주요한 인사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문화도 정착됐다. 대표적으로 채용 시 사내 전문가들이 합격·불합격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바-레이저’ 면접 방식을 운영한다. ‘기술 역량 위원회’에도 현장 전문가들이 함께해 직원들의 역량을 평가하고, 최고 수준의 기술 인재들을 선발·육성하는 중이다.

/김현정기자 hjk10@



오비맥주, ‘캔크리시 챌린지’ 기부금 전달

오비맥주는 환경 캠페인 ‘2025 캔크리시 챌린지’를 통해 조성한 기부금을 협동조합 끌림에 전달하고 폐지수거 어르신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비맥주 사회공헌팀 이은아 이사(오른쪽)와 협동조합 끌림 조현경 대표가 기부금 전달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오비맥주



광주은행, 치매·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광주은행은 광주 지역 치매 어르신과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부금 3억5000만원을 기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기탁금은 치매 노인 및 발달장애인 배회감지기 4000여 대를 보급하는 데 활용된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왼쪽 두번째)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중앙대, ‘의혈언론인상·언론동문상’ 선정

중앙대학교언론동문회는 ‘2025 제13회 의혈언론인상’ 수상자로 성유미(경영06·오른쪽 두번째) 연합뉴스TV 아나운서, 안상현(신문방송07·맨 오른쪽) 조선일보 기자, 이보람(신문방송08·맨 왼쪽) 중앙일보 기자(가나다순)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2025 중앙언론동문상 특별상’ 수상자로는 이연희(철학86·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선정했다. /중앙대언론동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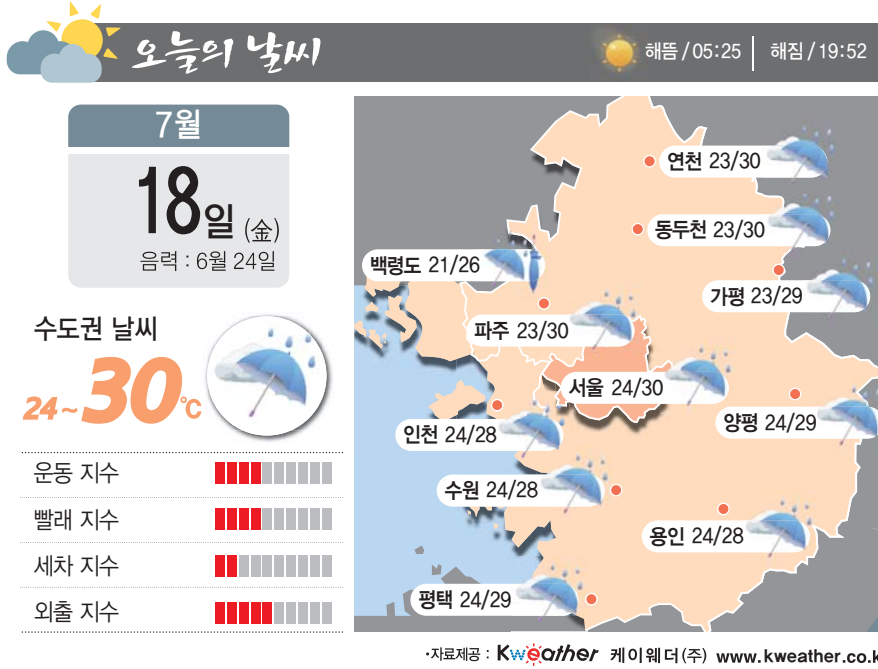
인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서실장 안영훈 △홍보담당관 김영수

◆ 국립경국대학교 △도서관장 김중복 △정보통신원장 김희선 △공동실험실습관장 겸 연구실안전관리센터장 최동혁 △박물관장 겸 역동서원감 천명희

부음

▲ 문경재(전 강북경찰서 경감·향년 67세) 씨 별세, 김금자씨 남편상, 문소희·문정미씨 부친상, 박준식(틸사이트 편집국 부국장)·서문성씨 장인상 = 16일 오후 7시,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21호, 발인 19일 오전 5시, 장지 별그리다양평. 02-923-4442





숙성우동&숙성돈카츠

“극강의 쫄깃함”

“국내최초 48시간 숙성우동”

그랜드 오픈

7/21

우동키노야

“우동키노야 구로디지털단지점”



*우동키노야 구로디지털단지점 7/21 그랜드 오픈

저출생 해법, 중소기업에서 찾자



김승호의
시선

결론부터 말하자. 전체 기업 종사자수의 81%가 다니는 중소기업에서 저출생 해법을 찾자.

‘신혼부부 결혼·출생 지원 확대, 가족친화적 소득세체계 개편, 자녀세액공제 추가, 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 공급, 자동육아휴직제도 도입, 난임부부 지원제도 강화 등...’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저출생·고령화 대책들이다. 물론 좋다.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해야 할, 아니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한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인구는 지난해 5175만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인구는 2030년엔 5131만명으로 축소되고 2072년에는 3622만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1972년 수준 인구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다. 합계출산율은 2015년(1.24명) 이후 계속 하락해 지난 2023년엔 0.72명까지 떨어졌다. 결혼을 꺼려하고, 결혼을 해도 애를 낳지 않는 부

부가 늘고 있다.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과 같은 과거의 인구 표어들이 얼마나 근시안적인 내용이었는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

2022년 기준으로 전체 2341만명 종사자 가운데 1896만명이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 물론 여기엔 소상공인도 포함돼 있다. 중소기업에서 저출생 해법을 찾아야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경제 6단체 등은 지난해 민간주도의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를 출범한 바 있다.

중소기업계 만형인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범중소기업계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일·가정 양립에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중소기업이 있는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행복한 어린이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공언하면서다.

그러나 요식행위만 있었을 뿐 이후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행이 없어 아쉽다. 그 사이 정부가 바뀌었다고해서 모르쇠 할 일도 아니다.

국가는 근로자 10명 중 8명이 다니는 중소기업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한다. 규모가 되는 중소기업은 단독으로,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은 주변 기업들과 함께 운영하면 된다. 업종별 단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주도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국가산업단지나 지역산단 등 기업이 모여 있는 곳은 좀더 수월할 수 있다.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는 기업에게 국가는 법인세 인하 등 혜택을 주면 된다. 집과 회사가 멀어 아이를 데리고 출퇴근하는 것이 힘든 이도 있을 것이다. 이때는 집과 좀더 가까운 다른 회사의 어린이집에 내 아이를 맡기는 등 실현 가능한 방법도 있다.

전통시장에 청년 창업을 유도하기위해 청년몰은 만드는데 시장 종사자들을 위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왜 없을까 궁금하기도 하다. 물론 이런류의 아이디어는 아이를 낳은 다음 이야기이긴하다.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지금까지 의미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좀더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전체 기업의 99%와 종사자의 81%가 몸 담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활용해보자.

/bada@metroseoul.co.kr

합치지 않아도 강하다



기지수첩

차현정
(산업부)

글로벌 조선사들이 구조 개편에 사활이다. 중국은 자국 최대 조선그룹 CSSC(중국선박그룹) 산하 양대 핵심 자회사인 중국선박공업과 중국선박중공을 통합해 초대형 국영 조선사를 탄생시킬 준비를 마쳤다. 자산 75조원, 연간 영업이익 18조원 규모의 ‘공룡 조선사’가 탄생하는 것이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이마바리조선과 재팬마린유나이티드를 합쳐 ‘국가대표 조선사’를 출범시켰다. 경쟁력 분산을 막고 기술개발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이다.

국내 조선 3사(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는 각자의 자리에서 강점을 살리며 개별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친환경 LNG선은 물론이며 해양플랜트, 컨테이너선 등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며 글로벌 발주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우리 조선사들은 ‘몸집 불리기’ 대신 ‘동맹 기반 협력’을 선택했다. 최근 주목받는 분야가 바로 MRO(유지·보수·운영)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단순한 함정 정비를 넘어 동맹국과의 방산 협력과 수출까지 연결된다.

특히 미국 해군이 보유한 대규모 함정이 노후화로 인해 가동률이 급격히 저하되면서 한국이 실질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국가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의 국영 정비조선소는 네 곳에 불과하고 수년 전부터 회계감사원이 역량 부족을 경고해 오고 있다. 결국 동맹국인 한국의 기술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내에서도 ‘해군 준비

태세 보장법’ 및 ‘해양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미 의회에서 발의됐다. 이로써 외국 조선소에서 해군 함정 건조를 금지하는 법에서 예외를 두게 된 것이다.

국내 조선사들은 MRO사업 수주 기회를 잡는데 적극적이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7월 미 해군 보급체계 사령부와 함정정비협약(MSRA)을 국내 조선사 중 최초로 체결했다. 한화오션은 최근 미국 해군 보급함 ‘찰스드류호’ MRO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양사는 미 해군의 MRO사업을 시작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신규 함정 건조까지 내다보고 있다.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만들어내느냐다. 한국은 그 길을 택했다. 인수합병을 통해 몸집을 키우지 않더라도 기술력으로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hyeon@

오늘의 운세 7월 18일 (음 6월 24일) http://www.saju4000.com



취

36년생 상대를 칭찬하면 2배로 돌아온다. 48년생 스스로 겸손하면 주변이 알고 도와준다. 60년생 힘들어도 해 오던 일을 계속 추진. 72년생 겸손이 미덕이니 양보를. 84년생 바쁜 가운데 게임을 배워보니 즐거움이 배가된다.



소

37년생 친구의 앞날에 영향을 주는 충고를 한다. 49년생 결과만 챙기느라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 61년생 동료들과 등산계획을 세워본다. 73년생 초대 받아 기쁘나 이로운 일은 없다. 85년생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호랑이

38년생 학수고대하던 문서에 도장을 찍는 날. 50년생 소머 호랑이띠와의 거래가 유익. 62년생 공부와 변화 속에 반드시 기회가 온다. 74년생 직장에서 업무가 혼란점 하나이다. 86년생 빔방울이 떨어지니 아직은 때가 아니다.



토끼

39년생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격. 51년생 남이 던져주는 희망을 바라지 마라. 63년생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건강에 신경 써보자. 75년생 인내의 끝이 보이지 조금만 더 노력. 87년생 모처럼 지인들과 기차로 여행을 가본다.



용

40년생 남의 도움에 고마움을 표시. 52년생 핑크보라색이 행운을 준다. 64년생 어려움이 곳곳에 있으니 심호흡을 하고 길을 나서자. 76년생 하던 일이 뜻대로 되니 안심. 88년생 끝이 깊을수록 산도 높은 법이니 힘을 내서 도전.



뱀

41년생 머리만 믿고 있다면 큰 낭패. 53년생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 피눈물 난다. 65년생 눈치 빠른 행동이 상사의 눈에 든다. 77년생 즐거운 일이 남치는 하루이다. 89년생 서두르지 말고 가족과 상의해서 일을 처리.



말

42년생 감이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기다린다. 54년생 물 흐르는 대로 일이 진행된다. 66년생 연인의 연락을 받지만 반감지 않다. 78년생 시시비비를 가려봐야 자신의 허물만 드러난다. 90년생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한 운세.



양

43년생 새로운 계약이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 55년생 황재운은 화중지병花中之餅이니 성실하게. 67년생 명성이 깔려도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칠 수. 79년생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는 법. 91년생 남 탓만 하지 말고 서류를 잘 살펴라.



원숭이

44년생 발로 뛰는 일을 찾아보자. 56년생 생각지도 못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 기쁘다. 68년생 선불리 시작하지 말고 많은 준비를 하라. 80년생 집안 농사짓는 땅에서 풍년이 되길 기원 드린다. 92년생 가족의 형편을 살피고 도움을 줘라.



닭

45년생 일이 어려워도 풀어나갈 운. 57년생 돈을 벌어 집이 생기니 이ानी 좋을까. 69년생 어제 결정한 일을 오늘 번복할 일이 있다. 81년생 좋은 일이 뜻대로 되어 기쁠 것이다. 93년생 사람 만나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면 성과가.



개

46년생 반대하는 일에도 대의명분이 있어야 한다. 58년생 밑 빠진 독에 물붓기하고 있는 상태. 70년생 기도발원대로 이루어지니 부모님께 감사. 82년생 문전옥답門前玉畚斗가꾸어 놓아야 기쁠지다. 94년생 장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날.



돼지

47년생 북쪽으로 길을 나서는 행운이 있다. 59년생 지는 태양은 막을 도리가 없다. 71년생 가정이 화목해야 다른 일도 잘 풀린다. 83년생 마음이 흐르니 꽃구경이 무슨 소용이라만. 95년생 남은 빛을 다 갚으니 앞된 이가 빠진 것처럼 시원하다.



김상회의四季

내 그릇만큼 채워가라

유명한 셀럽이나 성공한 기업가를 보면서, 가까운 지인이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주변 사람의 자녀가 명문대에 합격했다는 소리를 들을 때도 부럽다고 생각한다. 부럽기도 하지만 뭔가 허전함도 느낀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남이 가졌을 때 느끼는 허전함이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모든 걸 팔자 탓으로 돌리기도 한다. 저 사람은 타고난 복이 많아서 그렇고 자기는 팔자가 기구해서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마음이야 이해가 되지만 사주팔자는 단순히 좋고 나쁨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다. 사주는 각자의 그릇에 맞는 무게가 있다.

성공한 기업가의 팔자를 부러워하지만, 막상 그 자리를 얻으면 무게를 감당해낼 사람이 별로 없다. 엄청난 스트레스와 책임감은 물론이고 끝없는 경쟁으로 남모를 고통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는 화려함 뒤에는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무게가 숨어있다. 각자의 그릇은 크기도 모양도 쓰임새도 다르다. 어떤 그릇은 수십억 재물을 담을 수 있지만 어떤 그릇은 작아도 소중한 행복을 담기에 적합하다. 중요한 건 자기의 그릇에 무엇을 채우느냐다. 그리고 그 채워진 것에 얼마나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느냐 하는 것이다.

남의 큰 그릇을 부러워하면서 내 그릇이 작다고 좌절할 이유는 없다. 내 그릇에 담긴 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중요하다. 결국, 각자의 팔자에 맞게 사는 것이 행복이다. 자기가 타고난 역량과 재능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게 진정한 만족을 준다. 남의 그릇을 보면서 자기의 것을 우습게 여기거나 감당하지 못할 무게를 스스로 짊어지고 고통에 시달리는 것보다 훨씬 현명한 선택이다. 어떤 팔자든 행과 불행이 담겨 있으니 자기 그릇을 찾아가면 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1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818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스도쿠

153문제

스도쿠3650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컬러스도쿠110

초·중·고·대 120

스도쿠3650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레디트와 월드마음을 소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2	9	6	8	7	9	2	1	8
2	8	1	9	8	2	9	6	7
9	7	8	2	6	1	2	9	8
8	2	9	7	9	8	6	2	1
6	2	7	2	1	8	9	8	9
8	1	9	6	2	9	8	7	2
1	9	2	8	6	7	2	9	9
9	6	8	9	2	7	1	8	2
7	8	2	1	9	8	9	6	

6	1	9	2	8	7	2	9	8
8	2	8	9	2	9	1	6	7
2	9	7	1	6	8	2	8	9
9	7	8	9	1	8	2	6	9
9	2	9	8	9	6	8	7	1
8	6	1	7	2	8	9	9	2
7	9	9	8	8	1	6	2	2
1	8	2	6	9	2	7	8	9
2	8	6	2	7	9	9	1	8

때론 독주로 때론 협연으로... 비에티, 바롤로 크뤼의 향연



안 상 미 기자의
Why, wine

바롤로는 이탈리아 피에몬테 위치한 와인 산지다. 네비올로 품종으로 만든 강건하면서도 우아한 와인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사실 바롤로는 실제하는 작은 마을의 이름이었지만 여기서 사보이왕에게 와인을 대접하면서 이 지역 와인이 바롤로로 통칭됐다. 하나로 묶였지만 토양과 미세 기후가 마을마다 제각각이고, 양조자에 따라 서로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롤로 와인이다. 바롤로에 크뤼급 포도밭 개념으로 각각의 개성을 지닌 싱글 빈야드만 무려 181곳이다.

와이너리 비에티의 우르스 페터 수출 총괄이사는 최근 한국을 방문해 “비에티는 1961년에 크뤼급의 특정한 포도밭에서 생산된 포도만으로 와인을 양조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피에몬테 최초의 싱글 빈야드 와인”이라며 “좋은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땅에서 직접 포도를 재배하겠다고 나선 것부터 토착품종과 테루아에 집중해 투자를 늘린 것까지 피에몬테에서 선구자적 정체성이 가진 것이 바로 비에티”라고 강조했다.



와이너리 비에티의 우르스 페터 수출 총괄이사가 바롤로 크뤼 와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나라셀라

비에티는 현재 85헥타르의 포도밭을 직접 소유하고 있다. 바롤로에서 단일 생산자 기준으로는 가장 넓다. 마을 단위로 보면 바롤로 지역 11개 중 9개 마을에서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으며, 싱글 빈야드 바롤로 크뤼를 생산하는 몇 안되는 생산자다.

페터 이사는 비에티의 와인 양조를 음악에 비유했다. 싱글 빈야드 각각이 하나의 악기가 되어 모두가 협연하는 오케스트라가 될 수도 있지만 개성이 두드러진 크뤼는 솔로리스트로 싱글 빈야드 바롤로로 내놓는다.

각 싱글 빈야드의 솔로 연주에 앞서 협주를 먼저 들어보자.

‘비에티바롤로카스틸리오네’는 27개의 싱글빈야드를 블렌딩했는데 작은 구



(왼쪽부터)티모라스 데르토나 2021, 바르베라 다스티 라 크레나 2019, 바롤로 카스틸리오네 2020, 바롤로 크뤼 부르나테 2020, 바롤로 크뤼 체레퀴오 2020, 바롤로 크뤼 로게 디 카스틸리오네 2020, 바롤로 크뤼 라자리토 2020, 바롤로 크뤼 라베라 2020, 바롤로 크뤼 몬빌리에로 2020. /안상미 기자

획인 파셀로 치면 47곳이 담겼다. 구획별로 나눠 양조하면서 반복적인 테이스팅으로 매년 비에티가 추구하는 스타일로 만든다. 잘 익은 과일과 함께 땅에서 느껴지는 흙과 미네랄 향이 인상적이다. 이제는 각자의 개성을 잘 살린 솔로 리스트의 차례다.

먼저 바롤로의 중심부에 위치한 ‘바롤로 크뤼 부르나테’와 ‘바롤로 크뤼 체레퀴오’다. 부르나테와 체레퀴오는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 토양도 같다. 부르나테는 좀 더 따뜻한 남향으로 바롤로 크뤼 부르나테는 붉은 과일과 제비꽃, 감초향이 복합적이다. 체레퀴오는 남동향이다. 바롤로 크뤼 체레퀴오는 검붉은 과일향과 함께 허브향이 인상적이다.

프랑스 부르그뉴에 빗대면 부르나테는 ‘상불뤼지니’, 체레퀴오는 ‘뤼생조르주’ 스타일이다.

‘바롤로 크뤼 로게 디 카스틸리오네’와 ‘바롤로 크뤼 라자리토’는 바롤로 동부에서 산맥을 사이에 두고 갈렸다.

가파른 절벽 지형에서 만들어진 바롤로 크뤼 로게 디 카스틸리오네는 검붉은 과일과 함께 감초, 허브향이 올라오며, 입안에서는 극히 정교하고 섬세하다. 바롤로 크뤼 라자리토는 아로마부터 농축되고 힘이 있었으며, 입 안에서는 벨벳 같은 질감으로 여운이 길게 남는다.

마지막 비교는 ‘바롤로 크뤼 라베라’와 ‘바롤로 크뤼 몬빌리에로’다. 바롤로 지역에서 라베라가 남쪽 끝이라면 몬빌

리에로는 북쪽 끝에 위치했다.

라베라는 남쪽이지만 해발고도가 480m로 높다보니 비에티의 싱글 빈야드가운데 가장 서늘해 단단하면서 산도가 돋보일 수 있다. 바롤로 크뤼 라베라는 농축된 과실미와 구조감, 산도가 균형을 잘 이루고, 허브향도 인상적이었다.

몬빌리에로는 우아한 탄닌감으로 바롤로의 부르그뉴로 불리는 곳이다. 바롤로 크뤼 몬빌리에로는 딸기와 체리 등 붉은 과일과 함께 말린 장미향과 흰 후추 등의 아로마가 복합적이며, 테루아를 그대로 반영하듯 부드러운 탄닌이 길게 이어졌다.

선보인 바롤로 와인은 모두 2020 빈티지다. 2020년이라면 팬데믹으로 사람에게서 혹독한 시간이었지만 포도재배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온화하고 무난한 해였다. 보통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싱글빈야드 크뤼급이라고 해도 지금부터 시음을 시작해 볼 수 있는 빈티지다.

이번 한국 방문은 바롤로 와인과 한식의 궁합은 살펴보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같이 한 메뉴는 인삼기장죽과 전, 잡채, 등갈비찜 등이다.

그는 “보통 이탈리아 와인은 이탈리아 음식, 프랑스 와인은 프랑스 음식이 최고라고 여기지만 좋은 와인은 좋은 음식과 어울린다는 것이 더 맞다”며 “섬세한 바롤로 와인과 자극적이지 않은 전통 한식이 두루 잘 어울렸다”고 평가했다.

/smahn1@metroseoul.co.kr



문화 단신



주말은 책과 함께

롯데시네마, 여름 시즌 신규 굿즈 라인업 공개

복합문화공간 컬처스퀘어를 지향하는 롯데시네마가 7월 여름 시즌 개봉 영화 중 5편을 선별하여 소장육구를 자극하는 새로운 굿즈들을 공개했다.

먼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인기 애니메이션 ‘극장판 도라에몽: 진구의 그림이야기’다. 방학을 맞아 ‘도라에몽’의 휴식 패턴에 맞춘 9종 랜덤 피규어 굿즈를 선보였다.

두 번째, 부동의 인기 시리즈 ‘명탐정 코난’의 28번째 극장판 ‘명탐정 코난: 적안의 잔상’은 가네임텍 디자인의 키링과 스페셜 입체카드를 한 세트로 단독 제작하였고 ‘명탐정 코난: 적안의 잔상 키링 콤보’ 구성으로도 판매한다.

세 번째, 예수의 탄생을 다룬 K-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의 주요 장면을 삽입한 마그넷 세트

다. 총 5가지 디자인 중 2종 랜덤으로 담겨있어 눈길을 사로잡으며 팝콘, 음료와 함께 제공하는 ‘킹 오브 킹스 마그넷 콤보’도 출시한다.

네 번째, 핑크퐁과 아기상어가 총출동하는 인기 IP ‘베베핀’의 첫 극장판 애니메이션 ‘베베핀 극장판: 사라진 베베핀과 핑크퐁 대모험’ 개봉을 기념한 봉제인형 네임택이다.

마지막으로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은 영화속 등장하는 도깨비 ‘비형’을 봉제인형 소재의 키링으로 제작해 눈길을 사로잡는다. 여기에 영화 ‘전지적 독자시점’의 포스터 래핑 음료컵과 팝콘, 비형 키링을 세트에 제공하는 ‘전지적 독자 시점 콤보’도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메가박스, 리클라이너·LED 등 특별관 콘텐츠 강화

메가박스가 변화하는 관람 트렌드에 맞춰 관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극장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공간의 변화를 추진한다.

극장 경험으로 최대의 만족을 추구하는 관객들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메가박스는 콘텐츠 라이브러리를 확장함과 동시에 다양한 타입의 특별관을 강화하고 있다. 메가박스 대표 플래그십 지

점인 코엑스점은 25주년을 맞아 전관을 특별관으로 리뉴얼 하고, 관객들이 각자 원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신규 특별관 ‘리클라이너’와 ‘MEGA | LED’를 도입했다.

메가박스는 관객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고 극장에 와야 하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별관을 확대하고 강화할 계획이다.

‘쓰고 싶은’ 나를 발견해가는 여정

‘책과 우연들’은 한국 SF를 대표하는 소설가 김초엽의 첫 에세이다. 작가는 이 책을 “읽기 여정을 되짚어가며 그 안에서 ‘쓰고 싶은’ 나를 발견해가는 탐험의 기록”이라고 소개한다. 다양한 독서 경험을 담은 글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끈 파트는 ‘서평, 비평, 그리고 리뷰’다.

저자는 서평을 쓰는 게 어려워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지금은 자신에게 들어오는 모든 리뷰, 비평, 해설 의뢰를 거절함으로써 안전한 ‘무(無)서평 시대’에 머무르고 있다고 고백한다.

그는 서평을 꺼리는 이유로 ▲오독에 대한 두려움 ▲비평적 거리 두기의 어려움 ▲서평 목적에 대한 혼란스러움 크게 세 가지를 든다. 그중 첫 번째 이유가 가장 의외였다. 필자가 꼽는 독서의 즐거움 중 하나가 ‘내 멋대로 읽는 재미’여서다.

저자는 “정확히는 오독을 공개적으로 드러낸다는 두려움이 있다”며 “책을 잘못 읽거나 이해하는 것은 늘 일어나는 일이니 그 자체로는 겁낼 것이 없지만, 오독을 온 천하에 공개하는 것은 좀 부끄럽다”고 털어놓는다. 세상에 과연 오독이라는 게 존재할까.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듯, 각자 살아온 삶의 환경과 가치관도 제각각이다. 그런 독자들이 하나의 책을 똑같이 이해하리라는 기대는 비현실적이다. 100만명이 본 영화나 책에서 100만가지 해석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작가 역시 과거에는 자신의 소설이 의도대로



책과 우연들

김초엽 지음/열림원

읽히지 않는 상황에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 “내가 잘못 쓴 것인지 독자들이 잘못 읽은 것인지, 의도를 더 드러내야 하는지 혹은 숨겨야 하는지 종잡을 수 없어 머리가 아팠다”고.

수많은 서평을 읽으며 그는 하나의 진실을 받아들이게 된다. 소통의 수단으로서 책은 불완전하고, 그 불완전성이 바로 책의 가능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저자는 “나는 종종 서평을 읽으며 나도 몰랐던 내 소설의 의미를 발견한다”면서 “그것은 결코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때로 소설에 내재돼 있고, 누군가 발견하기 전 그 의미들은 마치 없는 것처럼 평평한 표면 뒤에 그저 잠들어 있었다”고 말한다.

296쪽, 1만6000원.

/김현정 기자 hjk1@



▲캐나다 ACT, 日세븐일레븐 인수 제안 철회... 주가 10% ↓

/사진 뉴시스

▲EU·러시아, 이스라엘 시리아 공습·가자 봉쇄 규탄

▲미국 6월 제조업 생산 0.1% ↑ ‘보험’... “고관세 여파 계속”

▲트럼프 “일본과는 서한대로” 압박 직후... 日관세자료, 美상무와 통화

▲일본 6월 무역수지 1.4조원 흑자·30.8% ↓ ... “대미수출 3개월째 감소”

▲일본 방위백서 ‘중국 위협’ 표현에... 中, 日 공사 ‘초치’

메트로 한줄뉴스

VIA
SHINSEGAE
ORIGIN

신세계백화점
업계 최초
여행업 진출
L1

metro®

Life

카페 과포화
성장동력 찾아
속속 해외진출
L2



산·물·대지, 조경 속으로... 풍경에 '기하학적 미감' 담다

아파트의 미학(美學)

아크로 베스티뉴

하이엔드 브랜드만의 조경 조성
직선·곡물 조합, 고품격 풍경 표현
자연 입체적으로 해석한 예술공간
단지의 정갈함 나타내는 조각상도

최근 찾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아크로 베스티뉴'. 지난 3월 입주를 시작했다. 지하철 4호선 범계역에서 내려 7번 출구에서 도보로 7분 가량 걸렸다.

단지 입구를 감싸는 외벽은 연회색 계열의 석재 패널로 마감돼 고급스러운 첫인상을 준다. 여기에 블랙 라인을 포인트로 넣어 단조로움을 덜었고, 모던한 고층 건물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도회적인 분위기의 입구 게이트에 쓰여진 '아크로'라는 단지명은 입구 측 외벽에 깊이감 있는 블랙 사각판 위에 배치돼 시선을 사로잡는다. 간결하면서도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드러낸다.

범계역에서 한 정거장 거리인 지하철 1·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은 대전~충청 광역급행철도(CTX)-C노선(예정)이 정차하는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두 정거장 거리의 인덕원역은 CTX-C노선(예정)과 인동선(인덕원~수원~동탄), 월관선(월곶~판교) 개통이 예정돼 있다.

단지가 위치한 안양시 평촌신도시 일대는 경기 남부 최대 상권이 위치해 있어 경기도 내에서도 최고 교육 여건을 갖춘 교육 1번지로 꼽히는 곳이다. 호계초, 호계중, 범계중, 평촌고 등도 단지 와 가깝다.

DL이앤씨가 시공한 아크로 베스티

뉴는 지하 3층~지상 37층, 10개 동, 총 1011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타입별로는 60㎡, 86A㎡, 87B㎡, 103B㎡, 114㎡로 구성돼 있다.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아크로'가 적용되는 만큼 회사는 커튼 월 룩과 저층부 석재 적용으로 외관 디자인의 품격을 높였다. 메인 도로와 인접한 일부 주동에는 측면 수직 조명을 적용해 단지 상징성도 부각했다.

단지로 들어가니 아크로 베스티뉴의 탁 트인 조경이 눈에 띄었다. 단지로 들어서면 제일 먼저 '기하학적 공간'이 보인다. 산, 물, 대지와 같은 자연의 유기적 형상을 재해석했다. 직선과 곡물, 공간의 풍경을 나누고 재조합해 입체적으로 그려낸다.

김용관 작가의 '대칭행렬' 조각상들도 단지의 정갈함을 나타낸다. 여러 모퉁이를 무작위로 쌓아 올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패턴을 규칙으로 삼아 다시 쌓기를 반복해 만들었다. 불규칙한 행위가 만들어내는 규칙성, 겉으로는 무질서해 보이는 행위 속에 숨겨진 규칙성을 탐구한 설치물이다.

단지 주동 최상층에는 커뮤니티 시설인 '스카이클럽아크로'가 들어선다. 스카이 게스트 하우스(35층)와 복층형 스카이 라운지(36~37층)로 구성하며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37층까지 바로 이동할 수 있다.

단지 중앙에는 수경시설과 어우러진 '가든 스퀘어'가 조성돼 있다. 넓게 펼쳐진 잔디 마당을 중심으로 양쪽에 정돈된 식재와 석재 디딤 공간이 배치돼 입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거닐고 머물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단차를 최소화한 수변 디자인과 절제된 수평 구조는 단지 전체의 미감과 조화를 이룬다.

가든 스퀘어 한쪽에는 입주민 전용 '가든 컬렉션 카페'가 마련돼 있어 일상 속 휴식과 여유를 더한다. 자연을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을 즐길 수 있는 이 공간은 외부로 부터의 단절감과 단지 내부의 개방감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장소다.

단지 한쪽에는 아이들을 위한 테마형 놀이터 '블록하우스'가 조성돼 있다. 선명한 레드 계열의 컬러와 기하학적 구조물이 조화를 이



루는 이 공간은 기존의 획일화된 놀이터와는 다른 감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중앙의 놀이시설은 계단, 미끄럼틀, 터널 슬라이드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 유아부터 초등 연령대까지 폭 넓게 활용할 수 있다. 지면 패턴은 컬러 블록처럼 설계돼 놀이공간 전체를 하나의 작품처럼 연출했다.

자연친화형 놀이터 '자라나는 나무원터'도 있다. 전체적으로 목재 질감을 살린 저층형 놀이기구들이 배치돼 있어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뛰노는 듯한 안정된 분위기를 연출한다. 중간중간 나무 모양 조형물과 동물 모양 조각상들이 숲의 생명감을 불어 넣으며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아외에는 휴게공간과 함께 신체의 밸런스를 잡아주고 근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레그프레스, 철봉, 워밍업, 풀웨이트 등의 운동 기구 등도 마련했다.

커뮤니티 센터에는 지역 최초로 25m 길이, 4개 레인 규모의 실내수영장도 마련될 예정이다. 별도의 인포메이션과 카페테리아, 샤워실까지 마련돼 마치 휴양지에 있는 듯한 완벽한 휴식을 단지 안에서 누릴 수 있다. 실내수영장 인테리어 설계는 세계적인 건축가 이타미준의 장녀이자 건축가인 유이화 대표가 이끄는 ITM유이화건축사사무소가 맡았다.

/전지원 기자 jjw13@metroseoul.co.kr



① 가든 컬렉션 카페. ② 김용관 작가의 '대칭행렬' 조각상.
③가든스퀘어. ④ 자연을 표현한 '기하학적 공간'.